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문학텍스트 내 생략의 화용적 분석*

- 프로제크의 “남쪽으로의 도주”를 중심으로 -

정 정 원
(경상대학교)

1. 들어가며

맥락 의존적 성격이 강한 슬라브어에서 문장 구성성분의 통사적 결속관계는 다른 인구에 비해 느슨하여, 주성분이 부재한 문장이 가능하다. 슬라브어 문장 필수 성분의 부재는 화용적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통사적 차원에서 연구되기도 한다. 통사적 차원에서 슬라브어 문장의 영형(null form/zero form)¹⁾은 변별적 의미를 표현하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슬라브어에서는 주어 없는 문장이 비문으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비인칭 주어가 존재하는 문장이 오히려 비문이 되기도 한다²⁾. 물론 다른 모든 언어에서처럼 슬라브어에서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 복원 가능한, 순수하게 화용적인 주성분의 부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형 주어와 술어가 통사적, 의미적 변별성을 갖는 슬라브어에서 화용론적 생략 또한 어느 정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8- A00101]

1) 통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null form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멜추크의 경우 zero fo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Мельчук 1995).

2) 이에 대한 예문은 정정원 (2012, 2013) 참고.

통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화용론적 생략의 통사적인 구조화의 양상은 개별 슬라브어에서 차이를 보인다³⁾.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슬라브어 생략을 화용론적으로 고찰하며, 구어적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생략의 화용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는 폴란드 작가 스와보미르 므로제크의 “남쪽으로는 도주”의 러시아어판 “Бегство на юг”와 폴란드어판 “Uciezka na południe”이다.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러시아어 텍스트가 폴란드어 텍스트의 번역본으로, 분석되는 두 언어의 텍스트가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이 작품은 마치 독자에게 옛날이 이야기를 들려주듯 시작되어, 문학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구어적인 문체가 많고, 구어적 대화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적인 분석이 자칫 폴란드어나 러시아어의 전반적인 경향이 아닌, 므로제크라는 작가의 문체에서 비롯된 특징에 근거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통계적인 분석은 지양하도록 하겠다.

II. 슬라브어 화용론적 생략의 두 가지 경향

화용론적 생략은 선행사와의 공지시를 통해 발생하며, 이때 생략되는 문장 성분은 높은 주어집성(givenness)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높은 주어집성이 항상 생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높은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생략되지 않고 대명사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⁴⁾. 높은 주어집성이 생략으로

3) 상이한 언어에 상이한 생략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형과 생략이 과률보다는 랑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Мельчук 1995:193)

4) 프린스와 군델 등의 주어집성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 주어집성의 위계가 가장 높은 것들이 생략 가능하고, 주어집성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것들은 명사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Evoked/Situationally Evoked> Unused > Inferrable > Containing inferrable> Brand New anchored > Brand New (Prince 1981: 245.)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이어지는 것은 주어집성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언어의 통사적 규칙과 문체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생략으로까지 이어지는 주어집성은 문장의 틀 안에서 미시적으로 발휘될 수도, 텍스트 전체에서 거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슬라브어의 화용론적 생략은 크게 텍스트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생략과 문장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생략에서는 ‘문장의 화제’가, 텍스트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생략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테마’가 문장에 부재하게 된다⁵⁾.

학술어체 문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슬라브어의 생략을 화용론적으로 분석한 연구(정정원 2013)에 따르면 폴란드어와 체코어에서는 텍스트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테마의 생략이 특징적인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문장 차원의 공지시성을 통한 화제의 생략이 특징적이다. 즉 분석된 폴란드어와 체코어 텍스트에서는 문장 내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텍스트 전체 차원에서 기능하는 주어집성이 높은 선행사가 존재한다면, 테마가 되는 공지시적 성분은 생략될 수 있지만,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문장 내에 선행사가 존재할 때만 주어집성이 생략되고, 문장 바깥에 존재하는 선행사를 공지시할 경우에는 생략 대신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한편 불가리아어에서는 두 경우가 모두 발견되었는데, 분석된 학술어체 문어 텍스트에서는 러시아어처럼 문장 차원에서의 공지시성을 통한 생략이 우세했다.

폴란드어와 체코어의 학술어체 문어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텍스트 차원의 공지시성을 가진 테마의 생략은 선행사가 문장 밖에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어 없는 문장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 한편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의 학술어체 문어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문장 차원의 화제의 생략은, 문장 밖, 즉 텍스트 차원에서 테마가 되는 공지시체의 생략을 어렵게 하고,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나타날 확률이 낮아진다.

다음에서는 학술어체 슬라브어 문어텍스트에서 생략의 두 가지 경향을 드

identifiable(Gundel, Hedberg, Zacharski 1993:279)

5) 테마(Theme)와 화제(Topic)의 차이에 대해서는 Nichols(1985), 이인영(1996), 정정원(2013) 참고

러낸 대표적인 두 언어, 즉 러시아어와 폴란드어를 선택하여, 구어적 문학텍스트에서의 생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학술어체 이외에 다른 문체의 텍스트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두 언어의 생략이 어떠한 화용론적 기능과 연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문학텍스트에서 생략의 화용론적 분석

1. 폴란드어, 러시아어 문학 텍스트의 생략

스와보미르 므로제크의 “남쪽으로의 도주”는 똥똥이, 보통이, 훌쭉이라는 세 소년이 지능이 매우 높은 인간화된 유인원을 만나서, 악당인 메피스토 코발스키를 피해 유인원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가면서 겪는 모험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대화가 많이 삽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술부에서도 마치 화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학작품들에 비해 구어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작품의 첫 문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버전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된다⁶⁾.

(1a) 1. Będzie[p] to[s₁] dosyć niezwykła historia[c₂], o której może niektórzy z Was[s₃] już słyszeli[p]. 2. Ale po raz pierwszy [θ(s₄)] opowiemy[p] ja[c₂] od początku do końca. 3. Oto [θ(p)] jedyna prawdziwa, źródłowa wersja[s₄]. (5)

(1b) 1. Это[s₁] будет[p] довольно необычная история[c₂], хотя

6) 이때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버전은 통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1번 문장의 경우 폴란드어 관계대명사 który가 이끄는 절이, 러시아어에서 양보접속사 хотя로 번역되었고, 3번 문장의 경우 폴란드어 직시적 소사(particle) oto가 러시아어에서는 직시뿐 아니라 대용도 표현하는 지시대명사 это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고의 논지를 흐리게 할 만한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

некоторые из вас[s₃] о ней[c₂] уже, наверное, слышали[p]. 2. Но мы[s₄] впервые расскажем[p] ее[c₂] от начала и до конца. 3. Это[s₄] **[Ø(P)]** единственная правдивая версия от первоисточника.⁷⁾⁸⁾ (5)

(1.이건 매우 흔치 않은 이야기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 중 몇몇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그 얘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3.여기 이게 직접 들은 유일한 진짜 버전입니다.)

이 처음 문단에서 폴란드어 버전과 러시아어 버전은 통사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를 하나 보인다. 즉 명시적인 대명사 **мы**로 시작되는 러시아어 (1b)의 2번 문장과 달리 폴란드어 텍스트 (1a)의 2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두 텍스트는 모두 소설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동사 어미를 통해서 주어가 1인칭 복수형 **мы/мы**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의 주어 생략 양상은 상이하다.

모든 시제의 동사 어미에 인칭이 표시되는 폴란드어에서 주격 인칭대명사의 존재는 잉여적이며,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 생략되지 않은 문장보다 무표적이다. 이러한 무표성은 인칭대명사 주어의 생략을 구조화시켰다. 따라서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인칭대명사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⁹⁾. 반면 동사 과거형에 인칭을 표시하는 문법 장치가 부재하는 러시아어에서 주어 자리에 놓이는 인칭대명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인칭 대명사 주어가 생략되지

7) [s]는 주어, [p]는 술어, [c]는 보어를, Ø는 생략을 의미한다. 생략의 경우 보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진하게 표시하였고, 소문자 Ø는 선택적인 생략을, 대문자 Ø는 문장 주성분의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각 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공지시성은 아래첨자로 표현하였다.

8) 이하의 예문에서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버전의 궁극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폴란드어 버전에 대한 한국어 해석만 표시하기로 하였다.

9) 물론 이때 첫 문장에서 선행사 없는 인칭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것은 이것이 1인칭이기 때문이다. 1인칭과 2인칭은 상황 참여자와 직시적 공지시 관계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 없다. 만약 주어가 3인칭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폴란드어 텍스트에서 주어 생략의 무표성에 대한 반례는 되지 못할 것이다.

않은 문장이 무표적이다. 따라서 (1b)의 2번 문장과 같이 인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재형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인칭대명사 주어는 생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a), (1b)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은 각각 다음과 같다.

(2a) 1. Żeby jednak należycie zrozumieć dalszy bieg wypadków, **[ø(s₁)]** musimy[p] sięgnąć do samego początku. 2. **[Zacząłø(p)]** się **[Ø(S)]** w miejscowości, której nazwy, ze względów zasadniczych, **[ø(s₁)]** nie możemy[p] podać. 3. Jest[p] to[s₂] małe miasteczko w północnej połaci Polski, odległe od centrów gospodarczych i kulturalnych, nieco sennie. 4. Oto **[ø(p)]** jego widok z lotu ptaka. 5. Ratusz, przed ratuszem deptak, po którym **[Ø(S)]** spaceruje[p] się co niedzielę, kino "Tęcza", spółdzielnia "Kosynier", szkoła, na którą **[ø(s₃)]** proszę zwrócić szczególną uwagę, ponieważ od niej **[zacznie(p)]** się **[opowieść[s₄]]**.(5)¹⁰⁾

(2b) 1. Однако, чтобы верно поня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обытий, **[мы[s₁]]** **[вынуждены(p)]** начинать **[ø(c₂)]**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2. **[Все[s₃]]** **[началось(p)]** в местности, название которой по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соображениям **[мы[s₁]]** сообщить не можем[p]. 3. Это[s₄] **[Ø(P)]** маленький городок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ольши, удаленный о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немножко сонный. 4. Вот **[Ø(P)]** его **[вид[s₅]]** с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5. Ратуша, перед ратушей "пятак", где **[все[s₆]]** **[прогуливаются(p)]**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кино "Радуга", кооператив "Косиньер", школа, на каковую **[ø(s₇)]** прошу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тому что с нее-то и **[начнется(p)]** наше **[повествование[s₈]]**.(5)

10) 폴란드어 버전과 러시아어 버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인용된 예문의 마지막에 페이지 수만 표시하도록 하겠다.
MROŻEK, Sławomir, *Ucieczka na południe*, Warszawa: Noir sur Blanc, 2002.
МРОЖЕК, Славомир, "Бегство на юг", *Мои возлюбленные кривоножки* (перевод Л.М.Цывьяна), СПб.:Амфора, 2000, 5-194.

(1. 하지만 사건의 전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이야기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 그 곳은 경제, 문화적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은 졸린, 폴란드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4. 여기 도시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5. 시청, 시청 앞에는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산책하는 보도, “무지개” 영화관, “농부 병사” 회사, 학교, 아 근데 이 학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폴란드어 텍스트(2a)에서는 러시아어 텍스트 (2b)에 비해 주어 생략 [ø(s)]이 더 많다. 예를 들어 폴란드어 1번, 2번 문장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 *my*가, 5번 문장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 *ja*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폴란드어 예문 (1a)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 *my*가 생략된 것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다.

한편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는 1,2번 문장의 *мы*는 생략되지 않고, 5번 문장의 *я*는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5번 문장의 *я*가 생략된 것은 러시아어에서 동사가 수행적 용법(performative)으로 사용될 경우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무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 Только [ø(s)] умоляю[р] вас, не обижайтесь, я[s] вовсе не это имел[р] в виду. (175)¹¹⁾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염두에 두었던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어 텍스트 (2b)의 2번, 5번 구문에서 각각 명시적인 주어 *всё*와 *все*로 번역된 주어가 폴란드어 버전에는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동 의미를 가진, 본질적으로 주어가 부재하는 무주어구문(formy

11) 상응하는 폴란드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3a)- Ależ bez urazy, łaskawy panie, nie to [ø(s)] miałem[р] na myśli. (177)

bezosobowe/ zdanie bezpodmiotowe)이며, 폴란드어에는 이와 같은 재귀형 혹은 어미 -no/to로 끝나는 무주어구문이 발달되어 있다.¹²⁾ 이러한 폴란드어 무주어구문이 러시아어 텍스트 (2b)에서처럼 항상 러시아어 인칭문에 상응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어 무주어구문은 러시아어 부정인칭문 (неопределенно-ли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으로 번역된다. 즉 두 언어 모두에서 구조적으로 주어 가 부재하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4a)Więc znowu **[Ø(S)]** zgaszono[p] światło i rozpoczęła[p] się część[s] towarzyska wieczoru. (164)

(4b)Потом снова **[Ø(S)]** погасили[p] свет, и началась[p] не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s] вечера поэзии. (161)

(그리고 다시 불이 꺼지고, 파티의 사교적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5a)Aresztowanych **[Ø(S)]** zamknięto[p] w przedziale. (120)

(5b)Арестованных **[Ø(S)]** заперли[p] в купе. (119)

(체포된 자들은 기차 칸에 감금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어 텍스트 (2b)의 1번 문장에서는 타동사 *начинать* 다음에 대격보어 **[ø(c₂)]**가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폴란드어 버전에서 자동사 *sięgnąć*가 필수적 보어 “do+생격”과 결합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폴란드어에 비해 러시아어에서 보어 생략이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없다. 대격 보어가 다른 보어에 비해 좀 더 잘 생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a)의 1번 문장의 보어는 생략되지 않은 반면 (2b)의 1번 문장의 보어는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따라서 이것은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보어

12) 이에 대해서는 정정원(2010:75-101) 참고

13) 이것은 (6a), (6b), (11a), (11b)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슬라브어 보어 생략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략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의 준도가 높은 슬라브어에서 다른 유럽어보다 대격 보어 생략이 활발함을 드러내는 예라고 할 것이다.

등위접속사절에서도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의 생략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모두에서 두 번째 등위접속사절의 주어는 생략되는 것이 무표적이다.

(6a) Nieznacznie małpolud [s₁] sięgał[p] po egzemplarz[c₂], a potem nagłym ruchem o(s₁) otworzył[p] go[c₂] i o(s₁) zaczął[p] czytać o(c₂) na głos.(138)

(6b)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₁] незаметно поднял[p] один экземпляр[c₂], а потом резко o(s₁) раскрыл o(c₂) и o(s₁) стал[p] громко читать o(c₂).(137)

(유인원은 눈에 띄지 않게 책 한 권에 손을 뻗어, 빠른 손놀림으로 그것을 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7a) Gruby, Chudy i Średni[s₁], onieśmieleni, poznawszy swoją słabość, nieudolność bezmierną w porównaniu z tym, co o(s₁) słyszeli[p], a zwłaszcza o(s₁) widzieli[p], przestali[p] się łudzić co do ewentualnego zwycięstwa w konkursie, o(s₁) porzucili[p] nawet zamiar wzięcia w nim udziału (162)

(7b) Голстый, Худой и Средний[s₁], окончательно оробевшие, исполненные созн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ничтожности, полнейшей бесталанности после того, что они[s₁] услышали[p], а особенно o(s₁) увидели, больше не питали[p] ни малейших иллюзий насчет победы в конкурсе и даже o(s₁) отказались[p] от намерения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м. (160)

(똥똥이, 훌쭉이, 보통이는 자신들이 들은 것, 그리고 특히 자신들이 본 것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약하고, 엄청나게 능력 없음을 깨닫고, 당황하여,

대회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참가하려는 생각조차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학술어체 문어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정정원 2013), 구어적 문학텍스트에서도 폴란드어의 화용론적 생략은 텍스트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러시아어의 화용론적 생략은 문장 차원에서 공지시성을 갖는 것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폴란드어 텍스트 (8a)의 2번 문장에서는 선행사와 관계없이 텍스트의 테마가 되는 성분이 생략된 채로 문장이 시작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어 텍스트 (8b)의 2번 문장에서는 테마가 되는 주어가 생략된 채로 문장이 시작될 수 없다. 이에 (8a)에서는 생략된 주어가 총 6회 등장하지만, (8b)에서는 2회만 등장한다.

(8a) 1. Jakże lekkomyślne okazało[p] się takie postanowienie...[s₁]
2. Nie [ø(s₂)] docenili[p] siły zła, drzemiącego w Kowalskim. 3. Ale o tym niestety [ø(s₂)] mieli[p] się przekonać dopiero później.
4. Starając się zachować jak najciszej, [ø(s₂)] zabrali[p] tak potrzebny im[c₂] sprzęt i tą samą drogą, którą [ø(s₂)] przysli[p], [ø(s₂)] opuścili[p] pokój. 5. Na podwórzu pensjonatu „Słoneczko” po raz ostatni [ø(s₂)] zobaczyli[p] limuzynę kowalskiy’ego, z którą łączyło[p] ich[c₂] tyle wspomnień[s₃].(192)

(8b) 1. Ах, как неблагоприятно и легкомысленно было[p] их решение...[s₁] 2. Они[s₂] недооценили[p] силы зла, крившиеся в Ковальском. 3. Но [ø(S)] убедиться в этом пришлось[p] им[c₂] позже.
4. Стараясь не шуметь, друзья[s₂] забрали[p] столь необходимое им[c₂] снаряжение и тем же путем, каким [ø(s₂)] пришли[p], [ø(s₂)] покинули[p] номер. 5. Во дворе пансионата «Солнышко» они[s₂]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бросили[p] взгляд на лимузин Мефа Ковальского, с которым у них[c₂] было связано[p] столько воспоминаний[s₃]. (189)

(1. 그런 결정이 얼마나 경솔한 것이었는지요. 2. 그들은 코발스키 안에 내재된 악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3.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야 깨달아야 했습니다. 4.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도록 노력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그들이 왔던 그 경로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5. “태양” 팬션 뜰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추억을 연상시키는 코발스키의 리무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어에서 테마가 되는 문장 성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격이 될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8a) 5번 문장의 *ich*[c₂]의 명시성에서 드러나며, 이때 이것을 생략하면 통사적, 화용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한편, 러시아어 텍스트 (8b)의 4번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θ(s)]**)와 결합하는 술어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공지시적 선행사(*друзья*)와 결합하는 술어(*забрали*)와 종속절 및 등위절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 세 술어가 완료상 과거로 시상적 동질성을 가지고 연속 동작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8b)의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они*[s])는 결합하는 술어의 선행하는 동사와의 시상적 동질성 측면에서는 생략 가능하지만, 그 두 술어의 관계가 문장 밖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았다. 즉 일반적으로 러시아어 문장의 생략에서는 동사의 시상적 동질성보다는 종속절, 등위절 등 동일한 문장 단위라는 조건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폴란드어 텍스트 (9a)에서 13회 등장하는 **[θ(s₂)]**는 모두 테마 *Gruby*를 공지시하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 텍스트 (9b)에서 *Толстый*를 공지시하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 (**[θ(s₂)]**)는 6회에 불과하다. 폴란드어에서는 텍스트의 테마인 *Gruby*와 공지시된 주격주어가 별개의 문장에서도 자유롭게 생략될 수 있는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테마인 *Толстый*와 공지시된 주격주어는 종속절 및 등위절을 형성하는 동일한 문장 안에 있는 경우에 생략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명사 (*он*)로 공지시된다.

(9a) 1. Kimkowiek albo czymkolwiek było[p] to[s₁] coś, co przeniknęło przez drzwi, [Ø(S)] należało[p] iść dalej. 2. Gruby[s₂] mimo strachu zrozumiał[p], że [Ø(s₂)] jest[p] w tej chwili odpowiedzialny za bezpieczeństwo domowników, niczego nieświadomych. 3. [Ø(s₂)] Pchnął[p] drzwi i [Ø(s₂)] znalazł[p] się na korytarzu. 4. [Ø(S)] [Ø(p)] Nikogo. 5. [Ø(s₂)] Uchylił[p] drzwi na lewo, prowadzące ku dalszym pokojom. 6. Długo, bardzo długo [Ø(s₂)] nasłuchiwał[p], [Ø(s₂)] skradał[p] się i [Ø(s₂)] czaił[p], aż wreszcie, znużony, [Ø(s₂)] doszedł[p] z wolna do przekonania, że wszystko[s] było[p] przywidzeniem. 7. [Ø(S)] [Ø(p)] Żadnego szmeru poza miarowymi oddechami śpiących. 8. Zmęczony, [Ø(s₂)] ruszył[p] do siebie. 9. I dopiero kiedy [Ø(s₂)] znalazł[p] się na środku swojej komnaty, [Ø(s₂)] zauważył[p], że [Ø(S)] nie ma[p] w niej żadnego światła poza księżycowym. 10. Stół[s₃] był[p] pusty. 11. Świeca wraz z lichtarzem oraz egzemplarz „O krasnoludkach i sierotce Marysi”[s₄] – zniknęły[p] bez śladu. 12. W pokoju [Ø(S)] nie było[p] nikogo. 13. Na wszelki wypadek [Ø(s₂)] zaglądnął[p] pod łóżko. 14. Także [Ø(p)] nie[s₅]. 15. [Ø(s₂)] Rzucił[p] się do okna. 16. Pod nim [Ø(p)] trzypiętrowa gładka ściana[s₆]. (33)

(9b) 1. Однако кем бы или чем бы ни был[p] тот или то[s₁], что исчезло за дверью, [Ø(S)] следовало[p] идти по его следам. 2. Толстый[s₂], хоть ему[c₂] и [Ø(S)] было[p] страшно, понимал[p], что в эту минуту на нем[c₂] лежит[p]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s] за всех обитателей дома, которые не подозревают ни о чем. 3. Он[s₂] толкнул[p] дверь и [Ø(s₂)] оказался[p] в коридоре. 4. [Ø(S)][Ø(p)] Nikogo. 5. Толстый[s₂] приотворил[p] дверь слева, ведущую к остальным комнатам. 6. Долго, очень долго он[s₂] вслушивался[p], [Ø(s₂)] крался[p] на цыпочках, [Ø(s₂)] замирал[p], пока, наконец, не [Ø(s₂)] пришел[p] постепенно к выводу, что все это[s₃] ему[c₂] почудилось[p]. 7. Не было[p] слышно [Ø(S)] никаких звуков, кроме мерного дыхания спящих. 8. Усталый, он[s₂] направился[p] к себе. 9. И когда [Ø(s₂)] оказался[p] в своей комнате, с удивлением [Ø(s₂)]

обнаружил[p], что освещает[p] ее только свет луны[s₄]. 10. На столе [Ø(S)] [Ø(P)] пусто. 11. Свеча вместе с подстечником, а также книжка «О гномах и сиротке Марысе»[s₅] исчезли[p] без следа. 12. В комнате никого [Ø(S)] не было[p]. 13.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Толстый[s₂] заглянул[p] под кровать. 14. Там тоже [Ø(S)] [Ø(P)] пусто. 15. Он[s₂] бросился[p] к окну. 16. Под ним была[p] гладкая глухая стена[s₆] высотой в три этажа. (33-34)

(1. 문을 가로질러 지나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더 가야 했습니다. 2. 뚱뚱이는 두려웠지만 자신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가 복도에 섰습니다. 4. 아무도 없었습니다. 5. 그는 다음 방으로 향하는 문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6. 오래,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귀를 기울이고, 살금살금 움직여 숨어 있다가, 결국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 잠든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 외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 지친 그는 자기 방으로 움직여갔습니다. 9. 바로 자기 방 한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곳에 달빛 외에 어떠한 불빛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11. 촛불과 촛대 그리고 “난장이와 고아 마리시야에 대하여”라는 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2.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3. 혹시 하는 마음에 침대 밑도 살펴보았습니다. 14.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 그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16. 창문 아래에는 3층짜리 매끈한 벽이 있었습니다.)

한편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모두에서 문법 의미가 동일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지시체가 여러 등장한다면 지시의 변별성을 위해서 그것들은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인 주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 텍스트에서 주된 테마는 ‘그들(oni/они)’이다. 그들 중에 한 명인 ‘보통이’가 주어가 되려면 명시적인 표현 Średni /Средний[s₂]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가장 무표적인 공지시 방법인 폴란드어의 영주어나 러시아어의 대명사 он으로는 ‘그’가 ‘그들’ 중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5번 문장에서는 ‘자물쇠(kłódka/замок)’가 주어로 등장한다. ‘자물쇠’는 ‘그들’에

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테마라기 보다는 잠깐 삽입된 테마(intervening theme)이며, 폴란드어 (10a)의 5번, 6번 문장에서는 주격 테마가 되어 생략[\emptyset (s₄)]되고, 러시아어 (10b)의 5번과 6번에서는 테마가 되어 각각 주격 Он[s₄]과 사격 대명사 с ним[c₄]이 된다. 이후 7번 문장에서는 다시 ‘보통이’가 테마가 되며, 두 번째 등위절의 주격 주어는 폴란드어, 러시아어 모두 생략된 형태로 등장한다. 이어 8번 문장에서는 Średni/Средний[s₂]와 남성, 단수라는 동일한 문법 의미를 가진 명사 zgrzyt/скрежет[s₆]가 주어로 등장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9번 문장에서는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모두 명시적인 명사 주어 Średni /Средний[s₂]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 문장인 10번에서는 전체 텍스트의 테마인 ‘그들(oni/они)’이 주어가 된다. 이때 폴란드어 버전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채로 등장하지만, 러시아어 버전에서는 Все трое[s₃]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주어가 된다. 러시아어 버전에서도 이 경우 텍스트의 테마가 되는 они를 주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선행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생략은 할 수 없다.

(10a) 1.- [\emptyset (s₁)] Zaczynamy[p] - 2.powiedział[p] Średni[s₂].
3.[\emptyset (s₃)] Mówili[p] teraz szeptem. 4.[\emptyset (s₃)] Podeszli[p] do kłódki[c₄].
5. [\emptyset (s₄)] Była[p] masywna. 6. [\emptyset (s₄)] Wydawała[p] się trudna do sforsowania.
7.Średni[s₂] dobrał[p] pilnik[c₅] i [\emptyset (s₂)] pociągnął[p] nim[c₅] po żelazie. 8. Pozległ[p] się nieprzyjemny zgrzyt[s₆]. 9. Średni[s₂] zatrzymał[p] się. 10. [\emptyset (s₃)] Nasłuchiwali[p]. 11. Z wnętrza nie dochodził[p] żaden odgłos[s₇]. (41)

(10b) 1. - [\emptyset (s₁)] Начинаем[p], - 2. объявил[p] Средний[s₂]. 3. Переговаривались[p] они[s₃] шепотом. 4. Они[s₃] остановились[p] перед замком[c₄]. 5. Он[s₄] выглядит[p] массивным. 6. Похоже, справиться с ним[c₄] будет[p] трудно [\emptyset (s)].
7. Средний[s₂] выбрал[p] напильник[c₅] и [\emptyset (s₂)] провел[p] им[c₅] по железной скобе замка. 8. Раздался[p] противный скрежет[s₆].
9. Средний[s₂] остановился[p]. 10.Все трое[s₃] прислушались[p]. 11.

Фургон[s₇] по-прежнему не подавал[p]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жизни.
(41)

(1. “우리 시작한다”. 2. 보통이가 말했습니다. 3. 그들은 이제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 자물쇠로 다가갔습니다. 5. 엄청난 크기의 자물쇠였습니다. 6. 잡아당기기 어려워 보였죠. 7. 보통이는 줄을 들고, 쇠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8. 불쾌한 마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9. 보통이는 멈췄습니다. 10.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11.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여러 주어 가 등장하는데, 이때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에서 그것이 공지시되는 양상은 상이하다.

(11a) 1. Nie mogąc opanować zdumienia, [θ(s₁)] zajęli[p] miejsca po drugiej stronie stołu na krzyżakach, na ławie dębowej.

2. - Ot, tylko stół[s₂] ten mi pozostał[p] - 3. zalił[p] się nieznajomy[s₃] - 4. a przecież były[p] kiedyś czasy[s₄] i była[p] służba[s₅].

5. Gruby[s₆] patrzył[p] na zupę tak chciwie, że nawet podchmielony gospodarz[s₂] to zauważył[p]. 6. [θ(s₂)] Podsunął[p] im[c₁] więc drugą miskę, z której wszyscy[s₁] trzej po kolei pojadalі[p] [θ(c₄)]. (81-82)

(11b) 1. Трое друзей[s₁], не в силах скрыть изумление, уселись на дубовую лавку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стола на козлах.

2. - Вот только стол[s₂] у меня и остался[p], - 3. со слезами пожаловался[p] хозяин[s₃], - 4. а ведь были[p] когда-то времена[s₄], и была[p] у меня прислуга[s₅].

5. Толстый[s₆] таким алчным взглядом смотрел[p] на суп, что даже изрядно захмелевший хозяин[s₂] заметил[p] это. 6. Он[s₂] поставил[p] им[c₁] вторую миску, из которой они[s₁] по очереди поели[p] [θ(c₄)]. (81)

(1.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들은 탁자 맞은 편 참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 “제겐 여기 이 탁자만 남았습니다.” 3. 낯선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4. “예전엔 좋은 시절도 있었고, 수발드는 사람도 있었죠.” 5. 똥똥이가 수프를 어찌나 열망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던지, 약간 술에 취한 주인장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6.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한 그릇을 더 주고, 세 명이 차례로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장의 주어는 처음에 세 친구, 그 다음에는 집주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똥똥이가 되었다가 다시 집주인이 된다. 폴란드어에서 세 친구(oni)는 다른 혼동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명시적 주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똥똥이(Gruby[s₃])’와 집주인(gospodarz[s₂])은 문법적으로 남성, 단수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혼동되지 않을 통사적 위치에 있는 6번 문장의 주어만이 생략될 수 있다.

6번 문장에서 폴란드어의 생략된 주어와 러시아어의 대명사 он의 선행사 후보는 둘이다. 똥똥이(Gruby/Толстый)와 집주인(gospodarz/хозяин)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때 공지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표현이고, 따라서 집주인(gospodarz/хозяин)이 선행사가 된다.

(11a)와 (11b)의 6번 문장의 [Ø(C₄)]의 경우 두 언어 모두에서 대격 보어가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라브어에서는 보어 생략이 다른 유럽어보다 자유롭지만, 모든 슬어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6번 문장에서 슬어가 pojadać와 поесть가 아니라 zjeść와 съесть였다면 [Ø(C₄)] 자리에 반드시 보어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것이 없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따라서 6번 문장에서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버전 모두 [Ø(C₄)]가 생략된 것은 그것이 대격 보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어와의 결속관계가 좀 더 약한 슬어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모두에서 테마성은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지만, 주격 테마의 생략이 무표적인 폴란드어에서는 매우 자주, 그리고 그것이 유표성을 띠는 러시아어에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주격 주어의 생략이 발생한다.

한편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생략 모두에서 주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두 언어 모두에서 테마가 주격이 되지 않으면 대체로 생략되지 않는다. 다음 텍스트에서는 ‘예인선(holownik/буксирчик[s₁])’이 테마로 등장한다. oni/они[s₂] 처럼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대테마(macro-theme)은 아니지만, 이것은 삽입된 테마가 아니라 그 다음 단락의 내용을 이끌어 가는 소테마(micro-theme)이다. 하지만 2번 문장에서 이 소테마는 두 언어 모두에서 명시적인 대명사 go/ero[c₁]로 표현되는데, 이는 이것이 주격이 아닌 사격이기 때문이다.

(12a) 1. Po chwili spoza zakrętu pojawił[p] się nieduży holownik[s₁]. 2. **[θ(s₂)]** Poznali[p] go[c₁] po iskrach z komina, jaskrawych w ciemnościach, szumie kół i charakterystycznym sapiącym rytmicznie łoskocie maszyny parowej.

3.- **[θ(s₁)]** Zabierze[p] barki[c₃] z powrotem- 4. zastanawiał[p] się małpolud[s₄]. - 5. Ale dokąd je[c₃] **[θ(s₁)]** zabierze[p]?(146-147)

(12b) 1. Через минуту из-за поворота появился[p] маленький буксирчик[s₁]. 2. Они[s₂] распознали[p] его[c₁] в темноте по ярким искрам, вылетающим из трубы, по шлепанью колес по воде и ритмичному пыхтенью паровой машины.

3. - Он[s₁] возьмет[p] баржи[c₃] на буксир, - 4. задумчиво промолвил[p] человекобезьян [s₄]. - 5. Но куда **[θ(s₁)]** их[c₃] поведет[p]? (144-145)

(1. 잠시 후 커브를 돌아 작은 예인선이 나타났습니다. 2.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굴뚝에서 나오는 빛과 증기선의 바퀴 소리와 특유의 숨을 내쉬는 듯한 리드미컬한 덜컹거리는 울림으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3. “저게 바지선을 다시 끌고 갈 거야.” 4. 유인원이 생각했습니다. 5. “하지만 바지선을 어디로 끌고 갈까?”)

(12a)와 (12b)의 3번, 5번 문장은 1번, 2번, 4번과 상이한 내러티브에 속해 있다. 새로운 내러티브와 더불어, 새로운 공지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2번과 3번 문장은 공지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폴란드어 텍스트 (12a)의 3번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되었다. 이것은 대응(anaphora)적 공지시 때문이 아니라, 직시(deixis)적인 기능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어 텍스트 (12b)의 3번 문장에서 새로운 내러티브의 첫 문장의 주어가 명사 буксирчик[s₁]가 아닌 대명사 주어 Он[s₁]이 된 것도 이것이 직시적 용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번과 같은 내러티브 안에 놓인 5번의 경우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모두에서 주어가 생략되는데, 폴란드어에서 이는 3번의 주어와 공지시적 관계에 놓인 주어이기 때문이며, 러시아어에서 이는 5번의 술어가 이와 더불어 시상적으로 3번의 술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어에서 테마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지표의 위계에 따르면, 명시적 대명사는 영형 대명사보다 낮은 위계를 차지하지만, 명사구보다는 높은 위계를 차지한다(Flashner 1987:136)¹⁴). 따라서 사격 테마는 비록 생략이 되지 못하더라도 명사가 아닌 대명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만약 테마가 바뀌어 연속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명사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러시아어에서는 생략 대상의 격뿐 아니라, 선행사의 격 또한 테마의 생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Nichols 1985:174-175). 러시아어 텍스트 (13b)의 1번 문장에서 테마는 사격 대명사 Им[c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고, 다음 문장에서 테마는 주격 они[s₁]이 되었지만 선행사가 사격이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 한편 폴란드어 텍스트 (13a)의 테마는 1번 문장에서 사격이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지만, 2번 문장에서는 선행사의 격과 상관없이 그 자신이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된다.

(13a) 1. Zdawało[p] im[c₁] [O(S)]się, że słońce[s₂] pociemniało[p].

2. [o(s)] Przysunęli się do siebie bliżej na ławce, [o(s)] rozejrzeli[p] się dookoła z lękiem. (167)

14) Flashner의 테마의 연속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Flashner 1987:136)

: 영형 대명사/문법적 일치 > 독립적 대명사 > 수식적 형용사(this one, the old one) > 완전한 명사구

(13b) 1. Им[c₁] О(S) показалось[p], что солнце[s₂] затмилось[p].

2. Испуганно оглядываясь, они[s₁] теснее сели[p] на скамейке. (165)

(1. 그들이 보기에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2. 그들은 벤치 위에서 좀 더 서로서로 가깝게 앉았고,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러시아어 예문 (14b)에서도 리무진을 지시하는 2번 문장의 주어 он [s₄]이 등위접속절의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인 대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때 선행사 лимузин[c₄]이 사격이기 때문이다. 한편 폴란드어 예문 (14a)에서는 대테마 oni의 생략된 형태 o(s₆) 이외에 생략된 주어는 없는데, 주어진 텍스트에 공지시적 주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14a) 1. Nagle, w tym mało odpowiednim ku temu momencie, stało[p] się coś[s₁], o co daremnie starał[p] się dotąd Średni[s₂]. 2. Gdzieś w głębi samochodu, wspianiałego i groźnego dla nich, jak łódź podwodna, rozległ[p] się groźny zgrzyt[s₃], nastąpił[p] wstrząs[s₄] i limusyna[s₅] ruszyła[p] w kierunku przeciwnym niż do tej pory, nareszcie do przodu, ale z punktu widzenia ucieczki, którą o(s₆) przedsiębrali[p], do tyłu. (84-85)

(14b) 1. И вдруг в совершенно неподходящий момент произошло[p] то[s₁], чего так долго и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ся[p] добиться Средний[s₂]. 2. Где-то внутри великолепной и непостижимой, как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машины, раздался[p] громогласный скрежет[s₃], лимузин[c₄] О(S) встряхнуло[p], и он[s₄] двинулся[p]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о есть наконец-то передом вперед, однак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направлении бегства, то назад. (84)

(1. 갑자기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보통이가 그 때까지 헛되이 열망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 마치 잠수함처럼 그들에게는 위대하고 위협적인 자동차 깊숙이 어딘가에서 위협적인 마찰소리가 났고, 요동침이 뒤따르더니, 리무진이 드디어 지금까지와 반대 방향인 앞으로, 하지만 그들의 계획한 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뒤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에서도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에서 격이 생략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a)와 (15b)의 5번 문장에서 테마 Średni/Средний[s₁]와 공지시 관계에 놓여 있는 go/ero[c₁]가 생략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격이기 때문이다. 한편, 5번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Średni/Средний[s₁]와 공지시 관계에 놓여 있는 주어가 폴란드어에서는 생략이 되는데(**[θ(s₁)]**), 이것이 주격이기 때문이며, 러시아어에서는 명시적 대명사 он[s₁]이 되는데, 이것은 그 선행사가 사격 Среднему[c₁]이기 때문이다. 이때 5번에 등장하는 삽입주어 jeden z nich[s₃]/один из них[s₄]와 Średni/Средний[s₁]의 지시적으로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순전히 화용론적 이유에서이다.

(15a) 1. W migotliwym blasku płomienia Średni[s₁] ujzał[p] obszerny namiot i twarze napastników[c₂]. 2. Było[p] **[θ(S)]** ich[c₂] trzech. 3. Wszyscy[s₂] **[θ(P)]** starsi, łysawi lub szpakowaci, o pełnej tuszy. 4. Porywając Średniego, **[θ(s₂)]** zmęczyli[p] się bardzo i **[θ(s₂)]** zasapali[p]. 5. **[θ(s₂)]** Odpoczywali[p] więc chwilę przy ogniu, aż wreszcie jeden z nich[s₃], ocierając pot z czoła chusteczką, najpierw prosił[p] go[c₁], zakłopotany i szczerze zmartwiony, o wybaczenie, a potem **[θ(s₃)]** zapytał[p], czy **[θ(s₁)]** umie[p] grać w brydża.(102-103)

(15b) 1. При мерцающем свете костра Средний[s₁] увидел[p] большую палатку и лица похитителей[c₂]. 2. Их[c₂] **[θ(S)]** было[p] трое. 3. Все[s₂] **[θ(P)]** пожилые, лысоватые либо с проседью, комплекции, скорее уж, тучной. 4. Похищение[s₃] Среднего изрядно утомило[p] их[s₂], они[s₂] тяжело дышали[p]. 5. Какое-то время они[s₂] отдыхали[p] у огня, а потом один из них[s₄], вытирая платком

пот со лба, принес[p] Среднему[c₁] со смущением и нескрываемым волнением извинения и сразу же θ(s₄) спросил[p], играет[p] ли он[s₁] в бридж. (102)

(1. 깜박이는 불빛 속에서 보통이는 거대한 텐트와 공격자들을 보았습니다. 2. 그들은 셋이었습니다. 3. 모두 뚱뚱한 몸에 나이 들고, 대머리거나 흰머리였습니다. 4. 보통이를 납치하느라 매우 지쳐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5. 그러고나서 그들은 잠시 불 옆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손수건으로 이마 위 땀을 훔치며,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지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된다. 주어진 텍스트의 테마인 Komendant[s₁] /Командир[s₁]는 폴란드어 버전에서 현병 사령관의 성격을 묘사하는 4번 문장을 제외한 모든 문장에서 선행사와 관계없이 주격으로 등장할 때는 계속 영형으로 나타나고, 2번 문장 go[c₁]처럼 사격으로 등장할 때는 명시적인 대명사 형태를 띤다. 하지만 러시아어 버전에서는 자신의 격뿐 아니라 선행사의 격이 생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인 1번 문장, 등위접속절의 주어인 3번 문장, 4번 문장에서는 테마가 생략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명시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16a) 1. Komendant[s₁] straży, przekonany, że θ(s₁) znalazł[p] się w sytuacji bez wyjścia, wpadł[p] w skrajne przygnębienie. 2. Następny pociąg[s₂] miał[p] nadejść dopiero o świcie, ale i to[s₃] nie wybawiało[p] go[c₁] z kłopotu, bo choć θ(s₁) podejrzewał[p], że argumenty[s₄] aresztantów nie są[p] należycie umotywowane, jako człowiek nie nawykły do sofistyki θ(s₁) obawiał[p] im się przeciwstawiać, a zniknięcie[s₅] Mefa utwierdziło go[c₁] jeszcze w wątpliwościach. 3. θ(s₁) Mógł[p] wprawdzie telefonować do swoich zwierzchników z prośbą o rozkazy i wyjaśnienia, ale przeczuwając, że to[s₆] skończyłoby[p] się dla niego[c₁] kompromitacja, θ(s₁) nie umiał[p] się zdobyć na ten krok. 4. Tak więc, miotany sprzeczными

uczuciami, słaby człowiek[s₁] zgubiony w gąszczu biurokracji, nie będąc w stanie podjąć żadnej decyzji, zapadł[p] w ponury bezruch. 5. o(s₁) Sądził[p] widocznie, że już do końca życia o(s₁) będzie musiał[p] pozostać na tej opuszczonej stacji, pilnując czterech podejrzanych osobników. (126-127)

(16b) 1. Командир[s₁] патруля, убежденный, что o(s₁) оказался[p] в безвыходной ситуации, впал[p] в мрачность. 2. Следующий поезд[s₂] шел[p] только утром, но и он[s₂] не избавлял[p] командира[c₁] из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которое тот[s₁] попал[p]: хотя аргументы[s₃] арестантов казались[p] ему[c₁] не вполне доказательными, тем не менее как человек, непривычный к софистике, он[s₁] не решался[p] их опровергать, тем паче что исчезновении[s₄] Мефа еще более усилило[p] его неуверенность. 3. Разумеется, он[s₁] мог[p] бы позвонить начальству, попросить разъяснений и указаний, но опасаясь, что кончится[p] это[s₅] его[c₁] компрометацией, никак не o(s₁) решался[p] на столь рискованный шаг. 4. Так что этот слабый человек[s₁], раздраемый противоречивыми чувствами, был[p] не в состоянии, заблудившись в дебрях бюрократии, принять какое-либо решение и o(s₁) впал[p] в угрюмое оцепенение. 5. Видимо, он[s₁] уверился[p], что теперь ему[c₁] до конца жизни o(S) предстоит[p] торчать на этом пустынном полустанке, охраняя четырех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личностей. (126-127)

(1.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확신한 헌병 사령관은 극도의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2. 다음 기차는 해 뜰 즈음에 오겠지만, 그것은 그를 곤경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체포된 자들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심했지만, 철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반박하기가 겁이 났고, 메프가 사라진 것이 그를 더욱더 의심에 빠뜨렸습니다. 3. 그는 확실히 자신의 상관들에게 진화하여 명령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불명예를 불러오리라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4. 그래서 모순된 감정들이 섞인 채로, 관료주의의 덩굴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약한 사람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무기력한 부동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 5. 아마도 그는 남은 일생을 네명의 용의자를 돌보면서, 그 텅 빈 역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어 텍스트의 공지시성에서 선행사의 중요성은 생략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16b)의 2번 문장에서 등위접속사절 뒤에 등장하는 대명사 주어 он[s₂]는 선행사인 поезд[s₂]만을 지시한다. 이렇게 대명사 주어 он[s₂]이 поезд[s₂]을 공지시하게 되면, 이 텍스트의 테마가 되는 현병 사령관은 대명사로 표현될 수 없어, 명시적인 표현인 Командира[c₁]로 표현된다.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테마가 되는 사격 선행사 Командира[c₁]를 공지시하는 주격 대명사는 이미 선점된 он[s₂]와 동일한 형태를 띠 수 없어 тог[s₁]라는 개별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는 생략뿐 아니라 대명사화에서도 선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텍스트의 테마보다는 문장내의 화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러시아어 텍스트 (16b)의 2번 문장의 등위접속절에서 공지시 관계에 있는 선행사(поезд)와 주어진 문장성분(он)이 모두 주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등위접속절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데, 이것은 화제인 поезд[s₂]와 달리 он[s₂]은 포커스가 되기 때문이다. 즉 정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을 위한 통사적인 조건이 맞음에도 생략될 수 없다.

이것은 다음 절의 폴란드어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테마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폴란드어 텍스트에서 생략되지 않는 공지시적 테마

주격 테마의 생략이 무표적인 폴란드어에서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테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격 형태를 띠고 있는 테마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의 예문 (8a)의 4,5번, (12a)의 2,5번, (15a)의 5번, (16a)의 2번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격 테마라 하더라도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텍스트 내에 동일한 문법 의미를 가진 여러 지시 표현이 등장하여, 지시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용된다. 이는 위의 (10a), (11a)와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7) 1. Średni[s₁] z czołem błyszczącym od potu, blady, przełączał[p] jakieś lewarki. 2. Samochód[s₂] ruszył[p], ale do tyłu, o włos tylko nie wpadając na przyczepe.
 3. -[θ(s₃)] Nie umiem[p] inaczej [θ(c)]¹⁵⁾ ! - 4. zawołał[p] Średni[s₂] z rozpaczą.(75)¹⁶⁾

- (1. 땀으로 이마가 반짝이는 창백한 보통이는 어떤 레버를 당겼습니다.
 2. 자동차는 움직였는데, 하지만 뒤로, 트레일러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3.“난 다르게는 못해.” 4. 보통이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위 텍스트에서 주테마는 Średni[s₁]다. 그런데 삽입된 테마인 Samochód[s₂]가 남성, 주격, 단수라는 문법 의미를 Średni[s₁]와 공유한다. 따라서 4번 문장에서 테마가 되는 주격 Średni[s₁]는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편 화용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폴란드어에서 명시적 주격 테마의 사용은 대조(contrast), 관점의 변화(changes in speaker's perspective), 내러티브의 불연속성(narrative discontinuity)을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Flashner

15) 이와 같이 조동사나 유사조동사와 결합하는 동사구가 생략되는 것은 동사구 생략(VP Ellipsis)이라 하며,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발견되는 구조화된 생략이다(McShane 2000).

16)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7b) 1. Смертельно бледный Средний[s₁], на лбу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и[p] капли[s₂] пота, переключал[p] какие-то рычаги. 2. Машина[s₃] тронулась[p], но [θ(s₃)] задним ходом и буквально лишь на волосок разминулась[p] с прицепом.

3. - [θ(s₃)] По-другому не могу[p] [θ(c)] ! - 4. в отчаянии завопил[p] он[s₁](75)

1987:152).

명시적으로 표현된 주격 테마는 많은 경우 대조를 드러낸다. 다음 텍스트의 문장 3에서 테마가 되는 주격이 잉여적인 문법 정보를 담은 명시적 대명사의 형태(Oni[s₁], on[s₂])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문장이 소년들과 유인원의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18) 1. Teraz nie było[p] już mowy [Ø(S)] o jakimkolwiek wahaniu. 2. Chłopców[c₁] łączyła[p] z małopodem[c₂] wzajemna zależność[s₃]. 3. Oni[s₁] liczyli[p] na jego pomoc obecnie, on[s₂] spodziewał[p] się od nich pomocy w przyszłości.(72)¹⁷⁾

(1. 이제 이미 어떤 망설임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2. 상호의존 관계가 소년들과 유인원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3. 그들은 그의 현재의 도움을 염두에 두었고, 그는 그들에게서 미래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나(Ja[s₁])’와 ‘뚱뚱이(Gruby[s₂])’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대비되는 다음 문장에서도 술어에 의해 일인칭, 단수라는 주어의 문법 의미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에서 테마가 되는 일인칭 단수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19) - Ja[s₁] nie umiem[p] śpiewać, niech Gruby[s₂] zaczyna[p] [Ø(c₃)]¹⁸⁾ (43)¹⁹⁾

17)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8b) 1. И сейчас уже[Ø(S)] не могло[p] быть и речи о каких-либо колебаниях. 2. Ребята[s₁] и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₂] оказались[p] некрепко связаны друг с другом. 3. Они[s₁] рассчитывали[p] на его помощь сейчас, а он[s₂] [Ø(p)] на их помощь в будущем. (72)

18) [Ø(c₃)]도 동사구 생략(VP Ellipsis)이다.

19)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9b)- Я[s₁] петь не умею[p], пусть теперь Толстый[s₂] начинает[p] [Ø(c₃)] (43)

(나는 노래 부를 줄 몰라. 똥똥이더러 시작하라고 하자.)

하지만 비교 대상이 항상 함께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폴란드어 텍스트의 4번 문장에서 주격 대명사 Ja[s₄]는, 비록 대조되는 대상은 없지만, 수명을 못하는 것이 잠재적인 타자와 대조되는 화자의 특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한 대조적 의미를 갖지 않은, 이어지는 5번, 6번 문장에서 공지사적 개체를 생략하고 (∅(s₄)) 있다.

(20) 1. - ∅(s₁)∅(p) Niezła myśl -2. ∅(c₂) zauważył[p] małopolud.[s₃] - 3.Ale jak to ∅(S) robić[p]? 4.Ja[s₄] nie umiem[p] pływać. 5.Jest[p] to[s₅] jedyna umiejętność zakresu ćwiczeń fizycznych, której nie ∅(s₄) posiadam[p]. 6. Ostatecznie ∅(s₄) jestem[p] tylko prostym małopoldem, ∅(s₄) wychowałem[p] się w dżungli, a ∅(s₄)∅(p)²⁰ nie w rzece.(144)²¹)

(1.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 2. 유인원이 지적했습니다. 3.“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 4. 나는 수영할 줄 모르는데. 5. 그것이 물리적 활동 영역 중 나한테 없는 유일한 능력이지. 6. 결국 난 평범한 유인원이고, 정글에서 컸지, 강에서 큰 게 아니니까.”)

주어가 화제가 아니라 초점이 되었을 때에도 폴란드어 주어는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어에서 텍스트의 테마는 문장 내에서 화제로 작용하며, 테마성뿐 아니라 화제성 또한 생략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특정 문장 성분이 테마성은 가지고 있지만 화제성은 가지고

20) 이때 ∅(s₄)∅(p)는 구조화된 생략인 잘라내기(Stripping)이다.

21)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0b) 1. - Мысль[s₁] ∅(P) неплохая, -2.∅(c₂) согласился[p]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₃] - 3.Но как это ∅(S) сделать? 4. Плавать я[s₄] не умею[p]. 5. В сфере физических упражнений это[s₅], пожалуй, ∅(P)единственное, на что я[s₄] ∅(P) не способен. 6.В конце концов, я[s₄] всего лишь ∅(P) простая человекообразная обезьяна и ∅(s₄) воспитывался[p] в джунглях, а ∅(s₄)∅(p) не в реке.(142)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즉 주어진 문장 성분이 텍스트 전체에서는 테마가 되지만, 문장 내에서는 화제보다는 초점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보적 중요성에 따라 주어진 성분은 생략될 수 없다.

(21)의 2번 문장에서 명시적 대명사 주어 on[s₂]은 tylko라는 초점 표시체에 따라 초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높은 주어집성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대명사 주어 on[s₂]이 생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 1. A stało[p] się to[s₁] w ten sposób: spryciarz[s₂] domyślił[p] się od razu, że jeżeli nie ∅(s₂) zostawiam[p] go[c₂] na pastwę głodu i niebezpieczeństw dżungli, to może[p] to[s₄] zawdzięczać jedynie mojemu nieprzemожnemu zaciekawieniu książką. 2. ∅(s₂) Wiedziałem[p], że tylko on[s₂] może[p] je zaspokoić, ∅(s₂) może[p] mi wytłumaczyć sens i przeznaczenie tego dziwnego przedmiotu, a także ∅(s₂) ∅(p)²² nauczyć posługiwania się nim. (53)²³

(1. 그것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내가 정글의 위험과 굶주림 속에 그를 버려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책에 대한 극복할 수 없는 관심 덕분일 것이라는 걸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2. 그만이 그것이 안정시킬 수 있고, 그 이상한 물건의 의미와 임무를 설명해줄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2a)의 1번 문장의 ja[s₂] 또한 초점이 되는데, 이것은 상응하는 러시아어

- 22) 폴란드어 텍스트 (21)의 2번째 문장에서 ∅(p)는 잘라내기(stripping)에 따라 구조적으로 생략되었으며, 이것은 러시아어 텍스트 (21b)의 2번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다.
23)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1b)1. A произошло[p] это[s₁] так: хитрый и коварный мерзавец[s₂] сразу догадался[p], что я[s₃] не дам[p] ему[c₂] погибнуть от голода или стать жертвой бесчисленных опасностей, какими ∅(S) изобилуют[p] джунгли, только из-за непреодолимого интереса, который пробудила[p] во мне книжка[s₄]. 2. А я[s₃] знал[p], что только он[s₂] ∅(P) способен утолить мой жгучий интерес, ∅(s₂) ∅(p) объяснить смысл и назначение этого непонятого предмета и ∅(s₂) ∅(p) научи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им. (53-54)

텍스트 (22b)의 첫 문장의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이때 초점인 ja[s₂]는 생략될 수 없다. 하지만 (22a)의 2번 문장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주어는 화제가 되고, 생략이 가능하게 된다.

(22a) 1. [θ(s₁)] Pytaliście[p], czy to ja[s₂] jestem[p] owym tajemniczym GODOTEM, z którym Mephisto[s₃] przemierza[p] kraj, pokazując go na płatnych występach. 2. Nie, [θ(s₂)] nie jestem[p] nim z tej prostej przyczyny, że GODOTA w ogóle [θ(S)] nie ma[p]. (62)

(22b) 1. Вы[s₁] спросили[p], не я[s₂] ли [θ(P)] тот самый таинственный ГОДО, с которым Мефисто[s₃] ездит[p]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которого [θ(s₂)] показывает[p] на плат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2. [θ(s₂)] Отвечаю[p]: [θ(s₃)] [θ(P)] не я[c₂], по той простой причине, что никакого ГОДО [θ(S)] вообще не существует.[p] (62)

(1. 여러분은 제가 메피스토가 입장료를 받고 그것을 보여주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그 신비에 쌓인 고도냐고 물어 보셨지요. 2. 아닙니다. 저는 그가 아닙니다. 고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어 버전 (22b)의 2번 문장에서 я[c₂]는 초점이 되었고, 정보적으로 덜 중요한 주어 это는 생략된 형태로 남았다. 생략 이전의 문장이 “это не я”이 아니라 상응하는 폴란드어 문장과 마찬가지로 “я не он”이었다 하더라도 이때 주어 я는 생략될 수 없다. 러시아어 be 동사 구문에서 현재 시제는 아예 형태가 부재하고, 과거 시제형에서는 인칭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 전체의 대테마가 되는 Gruby, Średni, Chudy는 주어로 나올 때 대부분의 경우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지만, 남성, 주격, 단수라는 문법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셋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 명시적으로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 이때 이들 중 하나가 소테마로 고정되면 그 이후에 테마 주어는 계속 생략된다. (23)의 3번, 4번 문장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번 문장에서 등위접속사절에 등장하는 주격 주어는 앞절의 주어와 공지시관계이며 주

격이다. 따라서 생략되어야 하지만, 그 앞에 *i*가 붙어 on[s₂]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선행사와 공지시 관계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닌 대명사로 표현된다.

(23) 1. Gruby[s₁] nie ukrywał[p] zmęczenia. 2. Średni[s₂] nadrabiał[p] miną : ale i on[s₂] ledwo trzymał[p] się na nogach. 3. Jedyne Chudy[s₃] sprawił[p] wrażenie, jakby dopiero przed chwilą o(s₃) wybrał[p] się na przechadzkę. 4. Ciągle o(s₃) niósł[p] klatkę z kanarkiem, którego o(s₃) zdobył[p] podczas pamiętnej, nocnej ucieczki, w tajemniczych okolicznościach. (140)²⁴⁾

(1. 뚱뚱이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2. 보통이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그도 겨우 두 다리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3. 훌쩍이만이 방금 전에 산책하러 나온 사람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4. 그는 비밀스러운 상황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야반도주를 할 때 그가 얻게 된 카나리아가 든 새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때 대명사는 항상 *on, ona, ono, oni, one*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 이상의 주어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ten, ta, to* 등의 대명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ten, ta, to*는 폴란드어에서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며, 선행하는 문장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대명사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것, 즉 후자를 가리킨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тот, та, то*가 먼 것을 지시하는 대명사인 것과 차이가 난다.

폴란드어 문장 (24)에서 주절의 선행사 kanarkiem[c₂]를 공지시하는

24)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3b) 1. Толстый[s₁] и не думал[p] скрыть, что устал. 2. Средний[s₂] делал[p] вид, будто ему все[s₃] o(P) нипочем, но и он[s₂] едва держался[p] на ногах. 3. И только Худой[s₄] выглядел[p] так, словно всего минуту назад o(s₄) вышел[p] на прогулку. 4. Он[s₄] по-прежнему нес[p] клетку с канарейкой, которую o(s₄) раздобыл[p] при таинств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о время памятного ночного бегства. (139)

ten[s₂]은 생략될 수 없다. 주절에서 남성, 단수, 주격이 될 수 있는 후보는 Chudy[s₁]와 kanarkiem[c₂]인데, 종속절에서 ten[s₂]이 생략된다면 생략된 주어는 무엇보다도 주절의 테마이자 화제가 되는 Chudy[s₁]를 공지시하기 때 문이다. 또한 이것은 대명사 on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데, 이 문장에서 ten이 on으로 대체된다면 그것은 Chudy[s₁]도 kanarkiem[c₂]도 아닌 제삼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24) Chudy[s₁] zdjął[p] koszulę i o(s₁) nakrył[p] nią klatkę z kanarkiem[c₂], żeby ten[s₂] nie zaczął[p] śpiewać i o(s₂) nie zdradził[p] ich kryjówki. (149)²⁵

(훔쭙이는 셔츠를 벗어 카나리아가 든 새장을 덮었는데, 그것은 혹시 카나리아가 노래를 불러 그들이 숨어 있는 걸 들키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4-1) ? Chudy[s₁] zdjął[p] koszulę i o(s₁) nakrył[p] nią klatkę z kanarkiem[c₂], żeby o(s₁) nie zaczął[p] śpiewać i o(s₂) nie zdradził[p] ich kryjówki. (149)

(훔쭙이는 셔츠를 벗어 카나리아가 든 새장을 덮었는데, 그것은 혹시 자기가 노래를 불러 그들이 숨어 있는 걸 들키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4-2) Chudy[s₁] zdjął[p] koszulę i o(s₁) nakrył[p] nią klatkę z kanarkiem[c₂], żeby on[s₃] nie zaczął[p] śpiewać i o(s₂) nie zdradził[p] ich kryjówki. (149)

(훔쭙이는 셔츠를 벗어 카나리아가 든 새장을 덮었는데, 그것은 혹시 그[제3자]가 노래를 불러 그들이 숨어 있는 걸 들키게 하지 않게 하려는

25)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4b) Худой[s₁] снял[p] рубашку и o(s₁) накрыл[p] ею клетку с канарейкой[c₂], чтобы та[s₂] не запела[p] и o(s₂) не выдала[p] их.(147)

것이었습니다.)

문장의 경계 밖에서 공지시를 통한 생략이 이루어지는 폴란드어에서 생략된 주어는 대체로 테마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명시적인 주격 테마의 사용은 테마의 변화와 화자의 관점 변화를 지시하기도 한다. 화자의 관점 변화는 새로운 소테마 (micro-theme)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며, 새로운 소테마가 등장할 때 그것이 (1a)의 2번 문장처럼 1인칭, 2인칭이 아니라면 명사구 주어로 그것의 정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 텍스트의 앞부분에는 유인원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이때 2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 공지시적 주어는 생략된다. 대체로 직접 인용의 경우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인용 지문인 4번에서마저 주격 주어가 선행사와의 공지시성으로 인해 생략된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장에 이르면 화자의 관점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목동을 쫓아가고 있던 메프에게로 옮겨진다. 이제 소테마는 변화되고, 6번에서 화자의 관점 변화로 인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Mef[s₂]를 공지시하는 주어는 화자 시점의 변화가 없고, 테마도 그대로 유지되는 다음 문장 7번에서 생략된 형태로 이어진다.

- (25) 1. To małpolud[s₁], żeby nie tracić cennego czasu, złamał[p] w potężnych rękach dyszel, na którym dotychczas Mef[s₂] holował[p] przyczepę. 2. [ø(s₁)] Wskoczył[p] do środka.
 3. -[ø(S)] [ø(p)] Prędzaj – 4. [ø(s₁)] zawołał[p] [ø(c₃)]- 5. [ø(S)] [ø(p)] prędzaj!
 6. Mef[s₂], który w daremnej pogoni za pastuszkami zapuścił[p] się, aż pod las, zauważył[p] już, co się dzieje. 7. Ile sił [ø(s₂)] gnał[p] z powrotem, krzycząc i wygrażając im. (75)²⁶⁾

26)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25b) 1. Это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₁], чтобы не терять драгоц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ломал[p] могучими ручищами дышло, на котором Меп[s₂] буксировал[p] прицеп. 2. Через секунду он[s₁] был[p] в машине.
 3. - [ø(S)] [ø(p)] Быстрее! – 4. крикнул[p] он[s₁] [ø(c₃)]. – 5.

(1. 귀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때까지 메프가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끌고 다녔던 마차의 앞부분을 강력한 손 안에 쥐어잡은 것은 유인원이었습니다. 2. 그는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3. “더 빨리!” 4. 그가 소리쳤습니다. 5. “더 빨리!” 6. 목동들을 따라 벌써 괜히 숲 근처까지 갔던 메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7. 소리치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반대방향으로 가느라고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러한 화자 혹은 관찰자의 관점의 변화에 따른 주어의 명시화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다음 텍스트는 똥똥이, 보통이, 훌쭉이가 처음 만난 무시무시한 유인원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된다. 폴란드어 텍스트에서 그에 대한 묘사는 1번 문장의 명시적인 명사에서 시작되어, 2번 문장에서는 계속 생략된다. 소테마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번 문장에서 화자의 시점은 똥똥이, 보통이, 훌쭉이 세 명의 소년들에게로 옮겨가, 그들의 대한 묘사와 더불어 그들의 대화가 이어진다. 이때 세 명의 소년은 명시적인 주어인 Chłopcy[s₂]로 표현된다. 그러한 명시적인 주어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이 장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세 소년과 유인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시적인 명사 주어를 삽입해줌으로써, 화자의 관점 변화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준다.

(26) 1. Strasliwy gospodarz[s₁] przystał[p] z uśmiechem. 2. Na znak, że o(s₁)] zostawia[p] im zupełną swobodę, o(s₁)] odszedł[p] w sam kąt, gdzie o(s₁)] zajął[p] się ćwiczeniami gimnastycznymi. 3. Chłopcy[s₂] stłoczyli[p] się w kącie przeciwległym. 4. Wczyscy[s₂] mieli[p] wypieki.

5. - Ten Mephisto[s₃] nas rąbnie[p] bez wahania, kiedy nas tu o(s₃)] znajdzie[p] - 6. powiedział[p] Średni[s₄]. - 7, O ile on[s₅]

o(S)] o(p)] Быстрей!

6. Меф[s₂], который в безуспешной погоне за пастушками добежал[p] уже до леса, заметил[p], что происходит. 7. И теперь со всех ног o(s₂)] мчался[p] обратно, крича и грозя кулаком. (74-75)

nas nie obroni[p]. (68)²⁷⁾

(1. 무시무시한 주인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2. 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겠다는 표시로 그는 체조를 하던 그 구석으로 물러갔습니다. 3. 소년들은 반대편 구석에 바짝 붙었습니다. 4. 모두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5. “메피스토가 여기서 우리를 찾으면, 주저 없이 우리를 작살낼거야.” 6. 보통이가 말했습니다. 7. “그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7번 문장에서 사용된 명시적 대명사 주어 on[s₅]이다. 위 텍스트에서 5번과 7번 문장은 1번, 2번, 3번, 6번과는 다른 내러티브에 속한다. 따라서 7번 문장의 명시적 대명사 주어 on[s₅]은 1번 문장의 Strasziwy gospodarz[s₁]를 공지시하지만, 이것을 선행사로 가질 수 없다. 여기에서 주어가 생략된다면 이것은 7번과 같은 내러티브에 속한 5번의 주어 Mephisto[s₃]와 공지시 관계에 놓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따라서 유인원을 지시하는 주어인 문장 성분은 5번의 주어 Mephisto[s₃]처럼 명시적인 주어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선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사 on[s₅]이 사용되었다. 이때 on[s₅]은 대응적 용법이 아니라 직시적 용법이다. 즉 이것은 선행하는 텍스트에서 공지시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의 실제 대상과 공지시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폴란드어에서 대명사가 직시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명시적인 주어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다음 폴란드어 예문에서 3번 문장의 on[s₂] 또한 직시적 용법이다. 이 텍스트에서 대화인 3번과 5번 문장은 나머지 문장과 다른 내러티브이다. 이때 대화 내러티브 처음에 등장하는 on[s₂]은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1번

27)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6b) 1.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₁] улыбнулся[p] и 【θ(s₁)】 кивнул[p]. 2. Давая понять, что 【θ(s₁)】 предоставляет [p] им полную свободу, он[s₁] отошел[p] в угол и 【θ(s₁)】 начал[p] делать гимнастические упражнения. 3. Ребята[s₂] сгрудились[p]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 углу. 4. Лица[s₃] у них горели[p]. 5. - Меписто[s₄], как только 【θ(s₄)】 найдет[p] нас тут, прикончит[p] без раздумий, - 6. произнес[p] Средний[s₅] - 7. Если только этот[s₆] нас не защитит[p]. (68)

문장의 przyjaciela[c₂]과 동일한 것을 지시하지만, 이것은 서로 별개의 내리티브이기 때문에 공지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훌쭉이, 뚱뚱이, 보통이의 대화에서 그곳에 부재하는, 그들 모두의 관심의 대상인 유인원을 대명사로 표시한 직시적 용법이다.

(27) 1. Chłopcy[s₁], przyczesując się i poprawiając zmięte ubrania, zwawym krokiem ruszyli[p] pod górę, nie chcąc stracić z oczu przyjaciela[c₂], którego ciemna, potężna sylwetka[s₃] nieco obco rysowała[p] się na tle wielkomięjskiego ruchu. 2. Chudy[s₄] niósł[p] pod pachą klatkę z kanarkiem.

3. - Gdzie on[s₂] jest[p], ∅(s₃) nie widzę[p] ∅(c₂) ! - 4. z niepokojem zawołał[p] Gruby[s₅] poprawiając okulary.

5. - ∅(s₂) Wbiegł[p] do tej bramy - 6. odpowiedział[p] Średni[s₆] ∅(c₇), wskazując jedną z kamieniczek Krakowskiego Przedmieścia. (156)²⁸⁾

(1. 소년들은 머리를 매만지고, 구겨진 옷을 펴면서, 생기 있는 걸음걸이로 산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대도시의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 낯선 그림을 형성했던 어둡고 거대한 형상을 한 친구를 눈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훌쭉이는 겨드랑이에 카나리아 새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3. “그는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4. 안경을 똑바로 하면서, 뚱뚱이가 불안하게 외쳤습니다. 5. “저 문으로 들어갔어.” 6. 크라코프 거리의 석조 건물을 하나를 가리키면서, 보통이가 말했습니다.)

28)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7b)1. Ребята[s₁] причесались[p], ∅(s₂) привели[p] в порядок мятую одежду и быстрым шагом ∅(s₂) пошли[p] в гору, не желая терять из виду своего косматого друга[c₂], чья мощная темная фигура[s₃] выглядела[p] несколько чуждой на фоне столичного оживления. 2. Худой[s₄] нес[p] под мышкой клетку с канарейкой.

3. - Где ∅(P) он[s₂], я не вижу его! - 4. завеспокоился[p] Толстый[s₅], поправляя очки.

5. - ∅(s₂) Забегал[p] в те ворота, - 6. ответил[p] Средний[s₆] ∅(c₇), указывая на один из домов Краковского Предместья. (153-154)

위 예문에서 대화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4번, 6번 묘사 문장에서는 명시적 주어가 사용된다.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계속 교체되어 그것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대화의 내러티브와 묘사의 내러티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폴란드어 직접 화법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28) 1. - **[Ø(S)]****[Ø(p)]** Dalej, dalej! - 2. **przynaglał**[p] **Średni**[s₁]
[Ø(c₂)]. - 3. **[Ø(s₃)]** **Możecie**[p] coś zaśpiewać.

4. - Ja[s₄] nie umiem[p] śpiewać, niech **Gruby**[s₅] **zaczyna**[p] **[Ø(c)]**
- 5. **zbuntował**[p] się **Chudy**[s₆]. (43)²⁹⁾

(1. “더, 더!”, 2.보통이가 부추겼습니다. 3.“너희들 뭔가 노래 부를 수 있겠어?” 4. “나는 노래 못하니까, 똥똥이더러 시작하라고 하자.” 5. 훌쩍이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어 테마 생략은 무표적이며, 이것은 폴란드어 동사의 인칭 표시라는 문법적 특징을 통해 구조화된다. 반면 인칭 표시와 연계되지 않은 사격 테마는 명시적으로 표현되며, 생략이 구조화된 주격 테마도 대조, 초점, 화자의 관점 변화, 내러티브의 변화, 직접 화법, 직시적 용법의 경우에는 생략되지 않고 명시적인 주격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폴란드어 텍스트의 생략에서는 혼의 Q-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혼의 Q-원리는 “너의 공헌이 충분한 것이 되게 하라(Make your contribution sufficient)”. “R-원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말해라 (Say as much as you can, given R)”이고 상한적 함축(upper-bounding implicata)을 추론하는 것이다.(Horn 1984:13)

즉 폴란드어 텍스트에서는 잉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주격대명사가 생략

29) 상응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8b)1. - **[Ø(S)]****[Ø(p)]** Дальше, дальше! - 2. **подгонял**[p] их **Средний**[s₁].
- 3. **[Ø(s₂)]** **Можете**[p] что-нибудь спеть.
4. - Я[s₃] петь не умею[p], пусть теперь **Толстый**[s₄] **начинает**[p] **[Ø(c)]**.
- 5. **взбунтовался**[p] **Худой**[s₅]. (43)

되어도 텍스트의 테마에 대한 충분한 문법 정보가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주격대명사나 명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Q-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 혼의 Q-눈금으로는 [영형, 대명사, 명사]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표적인 공지시 지표인 생략된 주어는 아닌 대명사 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조, 초점, 직시 등의 화용적 정보를 전달하고, 생략도 대명사도 아닌 명사 주어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내러티브의 변화, 화자의 관점 변화 등과 같이, 공지시적 기능 이외에 다른 화용론적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러시아어에서 문장외적 공지시성을 갖는 테마의 생략

러시아어에서는 테마 주격의 생략이 유효적이며, 3.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등위접속절, 종속절, 관계대명사절이라는 환경과, 선행사와 공지시적 성분의 주어성이 생략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러시아어에서도 문장의 틀 밖에서 공지시성이 작용하고 공지시적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우선 구어체라는 특수한 문체적 상황에서는 문장외적 공지시성을 갖는 러시아어 주어의 생략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주 발견된다. 니콜스도 보다 공적인 문체는 명시적 표현을 선호하고, 구어에서는 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Nichols 1985:172)

(27)의 대화 부분을 발췌한 다음 폴란드어 텍스트 (29a)의 3번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은 그것이 1번 문장의 on[s₁]과 공지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한편 러시아어 텍스트 (29b)의 3번 문장에서 주어는 종속절이나 등위접속절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대화 상황에서는 문장 틀 밖에서 선행사와 공지시성을 갖는 경우에도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29a) 1. - Gdzie on[s₁] jest[p], o[s₂] nie widze[p] o(c₁) ! - 2.

z niepokojem zawolał[p] Gruby[s₃] poprawiając okulary.

3. - o(s₁) Wbiegl[p] do tej bramy - 4. odpowiedział[p] Średni[s₄] o(c₃), wskazując jedną z kamieniczek Krakowskiego Przedmieścia.

(156)

- (29b)1. - Где **[Ø(P)]** он[s₁], я[s₂] не вижу[p] его[c₁]! - 2. зabеспокоился[p] Толстый[s₃], поправляя очки.
 3. - **[Ø(s₁)]** Забежал[p] в те ворота, - 4. отвeтил[p] Средний[s₄] **[Ø(c₂)]**, указывая на один из домов Краковского Предместья.
 (153-154)

(1. “그는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2. 안경을 똑바로 하면서, 뚱뚱이가 불안하게 외쳤습니다. 3. “저 문으로 들어갔어.” 4. 크라코프 거리의 석조 건물 하나를 가리키면서, 보통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구어 텍스트라는 생략의 조건은 보다 명료해진다. 1번 문장에서 주어와 보어는 생략되고, 4번에서 동사는 생략된다. 이때 1번의 생략된 주어와 보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4번에서 생략된 동사가 무엇인지는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 (30) 1. - **[Ø(s₁)]** Едет[p]! Едет!**[Ø(c₂)]** - 2. закричал[p] кто-то[s₃].
 3.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 семафором показались[p] клубы[s₄] пара, поезд[s₁] подъезжал[p] к вокзалу.
 4. - **[Ø(S)]****[Ø(p)]** За мной! - 5. вполголоса бросил[p]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₂] друзьям, когда поезд[s₁] уже притормаживал[p] у перрона. (111) ³⁰⁾

(1. “온다, 온다”, 2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3. 진짜 신호기 뒤로 증기 터미들이 나타났고, 기차가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4. “내 뒤로!” 5. 기차가 이미 플랫폼 옆에서 속도를 늦추고 있을 때, 유인원이 친구들에게 속삭이

30)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30a) 1. - **[Ø(s₁)]** Jedzie[p], jedzie**[Ø(c₂)]** !!! - 2. zawołał[p] ktoś[s₃].
 3. Istotnie, za semaforem ukazały[p] się kłęby[s₄] pary, pociąg[s₁] wjeżdżał[p] na stację.
 4. - **[Ø(S)]****[Ø(p)]** Za mną! - 5. zawołał[p] półgłosem małpołud[s₂] do towarzyszy, kiedy pociąg[s₁] zwalniał[p] już wzdłuż peronu. (111)

는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주어 생략은 러시아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엄격한 통사적 구조를 가진 다른 유럽어에서도 구어에서는 주요 성분들이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미가 발달된 러시아어의 구조상 문맥의 영향 없이도 생략된 성분을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유럽어 구어에서 발견되는 생략된 문장들이 문장 자체의 구조로만 볼 때 비문으로 간주된다면, 러시아어 구어의 생략된 문장들은 비문이 아닌 경우도 많다. 1인칭, 2인칭 주어 생략된 문장이 대표적이다.

(28)의 3번 문장 또한 1인칭 주어 생략된 예이며, 다음 예문 (31)의 6번 문장에서는 2인칭 단수 주어 생략되었다.

(31) 1. - **[Ø(S)]^[31]**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p], - 2. задумчиво произнес[p] Средний[s₁]. - 3. **[Ø(S)]** Придется[p] вам петь или что-нибудь декламировать. 4. Иначе кто-нибудь[s₂] может[p] услышать и **[Ø(s₂)]** поймет[p], что мы[s₃] тут занимаемся[p] чем-то не тем.

5. - **[Ø(S)]** **[Ø(p)]** Декламировать! - возмутился[p] Толстый[s₄].
- 6. **[Ø(s₅)]** Хочешь[p], чтобы мы[s₃] дураками выглядели[p]!(41)³²⁾

(1. “방법이 없어.” 2. 보통이가 말했습니다. 3. “너희들이 무언가 노래 부르거나 선언해야 해. 4.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의심스러운 짓을 하는 걸 모두 듣게 될 거야.” 5. “선언이라고!” 6. 똥똥이가 소리쳤습니다. 7. “넌 우리를 바보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31) 여기에서 주어는 일반인칭문(обобщенно-ли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의 주어로 구조적으로 생략되었다.

32)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1a) 1. - **[Ø(S)]** Nie ma[p] rady - 2. powiedział[p] Średni[s₁]. - 3. **[Ø(s₂)]** Musicie[p] coś śpiewać albo deklamować. 4. Inaczej każdy[s₃] usłyszy[p], że **[Ø(s₄)]** robimy[p] tu coś podejrzanego. 5. - **[Ø(s₄)]** **[Ø(p)]** Deklamować! - zawołał[p] Gruby[s₅]. - 6. Chyba **[Ø(s₆)]** chcesz[p] z nas zrobić idiotów.(41)

한편 (31)의 5번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모두 생략된 채 보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문맥을 통해 복원 가능하며, 대화적 구어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대화에서는 주격 주어 생략이 매우 빈번하다. 폴란드어 텍스트 (32a)의 경우 테마가 되는 주어가 생략되는 것이 무표적이다. 하지만 사격 테마는 3번 문장의 ciebie[c₂]처럼 명시적 형태를 띠며, 2번의 등위접속절에서는 명시적인 인칭대명사 my[s₃]가 대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32a) 1. - Nikt[s₁] ci[c₂] nie każe[p] latać bez przerwy, ale [θ(s₃)] [θ(p)]³³ od bramy do bramy. 2. Co [θ(s₂)] przeleczysz[p] kawałek, [θ(s₂)] schowasz[p] się w bramie, [θ(s₂)] odpoczniesz[p], a my[s₃] tymczasem dojdziemy[p] [θ(c₄)], i znowu. 3. Dopóki nie [θ(s₃)] znajdziemy[p] jakiego ubrania dla ciebie[c₂]. (154)

(32b) 1. - Да никто[s₁] не заставляет[p] тебя[c₂] носиться без передышки, [θ(s₂)] будешь бежать от ворот до ворот. 2. [θ(s₂)] Пробежишь немножко, [θ(s₂)]спрячешься в воротах, [θ(s₂)] передохнешь[p]. тем временем подойдем[p] [θ(c₄)] мы[s₃], потом [θ(s₂)] побежишь[p] снова. 3. [θ(s₂)] Будешь[p] бежать, пока мы[s₃] найдем[p] для тебя[c₂] какой-нибудь одежды. (152)

(1. 아무도 너더러 쉬지 말고 뛰어다니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문과 문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해. 2. 너는 좀 쉬었다가 문에 숨었다가 쉬고, 우리는 그 때 다가갈거야.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거지. 3. 우리가 네가 입을 옷을 찾을 때까지.)

33)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휘는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잘라내기(stripping) 형태인데, 이것을 러시아어 버전에서는 ty będziesz(너는 할 것이다)가 생략된 형태로 번역하였지만, 본고에서는 my każemy (우리는 명령한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θ(s₃)]로 표시하였다.

한편 러시아어 텍스트 (32b)에서 문장 내적 공지시성, 시상의 일치, 선행사의 주격성과 같은 생략과 관련된 원칙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1번 문장에서 선행사가 사격 тебя[c₂]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없는 등위절에서 주어는 생략되고, 2번과 3번 문장의 첫 구절은 문장의 첫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었고, 이때 동사의 상이 선행하는 문장의 동사의 상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도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2번과 3번의 мы[s₃]와 그 자신이 사격인 3번의 тебя[c₂]는 생략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어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가 인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구어 대화에서 잉여적인 1인칭, 2인칭 주어는 자주 생략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형태론적인 특징에 근거하지만은 않는다. 인칭이 표시되지 않는 러시아어 동사 과거형과 결합하는 주어에서도 1인칭, 2인칭 주어의 생략은 빈번히 발견된다. 따라서 구어체에서 1인칭, 2인칭 주어의 짝은 생략은 이것의 직시적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인칭은 특정 상황 안에서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는 정보나 선행하는 텍스트에 근거하여 그 공지시성이 결정되지만, 1인칭, 2인칭의 경우 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그 지시체가 결정된다. 따라서 상황상 주어가 누구인지 명백한 조건에서 굳이 주어를 명시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어 문법에서는 3인칭 주어의 생략은 불완전한 2성분 문장(неполное дву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로, 1, 2인칭 주어의 생략은 1성분 문장(одно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Белашапкова 1997:709-710).

하지만 야콥손에 따르면 러시아어에서 1인칭의 지나치게 잦은 생략을 도스또옌스키는 참을 수 없는 과장 혹은 오만함(раздражающая чванливость)으로 간주하기도 했다(Якобсон 1985:228). 즉 구어에서도 러시아어 1인칭, 2인칭 주어의 생략이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러시아어에서 선행사절의 술어와 주어인 절의 술어가 시상적으로 일치하면 문장의 경계 밖에서도 공지시적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에서 1번과 2번 문장이 별개의 독립적인 문장이지만, 주동사의 시상이 동일한, 그리고 조동사마저 동일한 상황에서 공지시적 관계에 있는 두 주어 중 뒤에 나오는 2번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상이 동일한 개별 문장에서 공지시적 주어의 생략이 발생하면 내러티브의 연속성, 동질성을 강화시킨다.

(33) 1. Они[s₁] могли[p] приблизиться лишь на расстояние двух вытянутых рук. 2. **[ø(s₁)]** Общаться же могли[p] только сквозь щель между неровными краями двух скальных обломков. (193)³⁴

(1. 그들은 어깨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2. 두개의 따로 떨어진 바위 덩어리의 평평하지 않은 가장자리 사이에 형성된 틈을 통해 서로 이해했습니다.)

(34)의 2번 문장에서도 주어가 부재한다. 1번과 2번의 주격주어는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고, 시상의 측면에서 술어는 불완료상 과거형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1.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переди по улице шел[p] седенький, как голубь, старичок[s₁] в старомодном черном пальто с бархатным воротником, олицетворение трогательной беззащитности. 2. **[ø(s₁)]** Шел[p], опираясь на зонтик.(173)³⁵

(1. 똥똥이 말이 맞았습니다. 2. 그들 앞에 구식의 벨벳 컬러가 달린 검은 외투를 입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무력함의 화신인 희끗희끗한 머리의

34)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3a) 1. **[ø(s₁)]** Mogli[p] zbliżyć się do siebie tylko na odległość ramienia. 2. **[ø(s₁)]** Porozumiewali[p] się przez szczelinę utworzoną między nierównymi krawędziami dwóch zalegających na siebie bloków skalnych.(196)

35)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4a) 1. Gruby[s₁] miał[p] rację. 2. Przed nimi szedł[p] gołębiosiwy staruszek[s₂] w staroświeckim, czarnym palcie z aksamitnym kołnierzem, uosobienie sympatycznej bezbronności. 3. **[ø(s₂)]** Podpierał[p] się parasolem.(175)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2. 그는 우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텍스트에도 2번 문장의 주어가 부재한다. 1번과 2번 문장의 동사는 시상적으로 불완료상 현재형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동사는 불완료상 현재형 일 뿐 아니라 반복이라는 불완료상의 구체 의미까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연속성이 보다 잘 드러나며 이때 2번 문장의 주어 생략 가능한 것이다.

(35) 1. Меф[s₁] снимает[p] зал[c₂], θ(s₁) разделяет[p] его[c₂] занавесом на две части с отдельными входами и θ(s₁) продает[p] билеты θ(c₃). 2. Потом θ(s₁) садится[p] в свой мощный лимузин и θ(s₁) удирает[p]. (62)³⁶

(1. 매프는 홀을 임대하고, 커튼을 사용하여 그것을 각각의 입구를 가진 두 부분으로 나눈 후, 표를 팝니다. 2.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근사한 리무진을 타고 도망갑니다.)

러시아어 텍스트에서 동일한 시상구조를 가진 절의 주어 생략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텍스트가 주절이나 등위접속절이어야 한다. 다음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는 1번의 뒷절의 주어(хозяин[s₂])와 2번의 앞절의 주어(Он[s₂])가 모두 주격이고, 시상적으로 동질적인 완료상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2번의 앞절의 주어(Он[s₂])는 원칙적으로 생략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선행하는 절이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어(Он[s₂])는 생략될 수 없다.

(36) 1. Толстый[s₂] таким алчным взглядом смотрел[p] на суп, что даже изрядно захмелевший хозяин[s₂] заметил[p] это. 2. Он[s₂]

36)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5a) 1. Meф[s₁] wynajmuje[p] salę[c₂], θ(s₁) dzieli[p] ją[c₂] krutyną na dwie części z osobnymi wejściami i θ(s₁) sprzedaje[s] bilety θ(c₃). 2. Potem θ(s₁) wsiada[p] do swojej znakomitej limuzyny i θ(s₁) ucieka[p]. (62)

поставил[p] им[c₁] вторую миску, из которой они[s₁] по очереди поели[p]. [**θ**(c₄)](81)³⁷

(1. 똥똥이가 수프를 어찌나 열망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던지, 약간 술에 취한 주인공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2.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한 그릇을 더 주었고, 세 명이 차례로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편, (37)의 선행하는 2번 문장의 동사 убегал[p]가 불완료상 과거이고, 3번 문장의 동사가 불완료상 과거형 Огибал[p]일 때, 3번 문장의 주격 주어 가 생략되었다.

(37) 1. Толстый[s₁] бежал[p], даже не видя, куда [**θ**(s₁)] бежит[p].
2. Вырванный внезапно из дремоты в уютном салоне шикар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он[s₁] снова от кого-то убегал[p] в холоде и мраке.
3. [**θ**(s₁)] Огибал[p] хлевы и сараи, [**θ**(s₁)] перескакивал[p] через канавы, но вдруг [**θ**(s₁)] почувствовал[p], как земля[s₂] уходит[p] у него из-под ног, и [**θ**(s₁)] полетел[p] в пустоту. 4. Он[s₁] летел[p], пока не [**θ**(s₁)] ударился[p] головой обо что-то наподобие жестяного барабана; раздался[p] глубокий протяжный звук[s₃], которому ответило[p] подвальное эхо[s₄].(89-90)³⁸

37)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6a) 1. Gruby[s₂] patrzył[p] na zupeł tak chciwie, że nawet podchmielony gospodarz[s₂] to zauważył[p]. 2. [**θ**(s₂)] Podsunał[p] im[c₁] więc drugą miskę, z której wszyscy[s₁] trzej po kolei pojadalі[p]. [**θ**(c₄)] (81-82)

38)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7a) 1. Gruby[s₁] biegł[p] na oślep. 2. Wyrwany tak nagle z drzemki w przytulnym wnętrzu luksusowego samochodu, znowu [**θ**(s₁)] uciekał[p] przed kimś wśród nocnej ciemności i chłodu. 3. [**θ**(s₁)] Okrążał[p] jakieś stodoły i [**θ**(s₁)] przeskakiwał[p] rowy, aż [**θ**(s₁)] stracił[p] grunt pod nogami i [**θ**(s₁)] poleciał[p] w pustkę. 4. [**θ**(s₁)] Leciał[p] tak, dopóki nie [**θ**(s₁)] uderzył[p] głową o coś w rodzaju blaszanego bębna, który wydał[p] odgłos dźwięczny i głęboki,

(1. 똥똥이는 앞뒤 안 가리고 달렸습니다. 2. 호화스러운 차의 안락한 내부의 단잠에서 갑자기 벗어나, 다시 밤의 어둠과 한기 속에서 누군가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3. 어떤 마굿간을 돌아서 도랑을 건너 뛰었는데, 발 밑에 디딜 곳을 잃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는 날아서 쇠북 같은 종류의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것은 지하실에서 나는 공명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울림 있는 깊은 메아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때 3번 문장에서는 테마 Толстый[s₁]를 주어로 하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형성하는 네 개의 절 모두에서 주어가 없다. 이때 세 번째 동사 почувствовал[p]는 완료상 과거로, 불완료상 과거인 선행 동사 перескакивал[p]와 시상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때 두 동사는 등위접속사 но에 의해 연결되므로, 시상의 동질성과 관계없이 등위접속사 이후에 등장하는, 공지시적 관계에 있는 주격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1번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와 다른 시제를 가진 бежит[p]의 주어와 4번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와 다른 상을 가진 ударился[p]의 주어가 생략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4번 문장의 주어는 명시적 형태를 띠는데, 이것은 개별 문장인 3번의 선행적 술어 полетел[p]는 완료상 과거지만, 4번의 술어 летел[p]는 불완료상 과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어에서 술어의 시상이 다를 경우, 공지시적 관계에 있는 주격 주어라도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38)의 2번과 4번 문장은 동일한 내러티브 상에 있지만, 2번 문장의 동사는 불완료상 과거형이고, 4번 문장의 동사는 완료상 과거형으로 시상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문장에서는 명시적인 대명사 주어 Он[s₃]이 사용되었다.

- (38) 1. - Я-то думал[p], это министр[s₂] едет[p] или еще кто...
 - 2. бормотал[p] он[s₃], всматриваясь в даль. - 3. Пардон, мне [(S)]
[(P)] пора подбросить в огонь...[(c₄)]

4. Он[s₃] тяжело встал[p] и [θ(s₃)] вышел[p] из барака. (136-137)³⁹⁾

1. “난 장관이나 뭐 다른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 2.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 “난 불에다 좀 더 넣어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4.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막사를 떠났습니다.)

다음 텍스트의 2번 문장의 두번째 주격 주어가 폴란드어 버전(39a)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러시아어 버전 (39b)에서는 명시적인 대명사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때 선행하는 절의 술어가 완료상 과거인데 반해, 두번째 절의 술어는 불완료상 과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두번째 문장 앞에 등위접속사 но가 삽입되면, он[s₂]은 생략가능하다.

(39a) 1. Ogarnęła[p] ich wilgoć[s₁], jeszcze bardziej dokuczliwa niż na zewnątrz, i pleśń. 2. Małpolud[s₂] nie zapalał[p] latarki, [θ(s₂)] szedł[p] pewnie. (188)

(39b) 1. Их окутала[p] сырость[s₁], в сто раз противней, чем на вольном воздухе, и запах плесени. 2.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₂] не стал[p] зажигать фонарь, он[s₂] уверенно шел[p] вперед. (185)

(39b-1) 1. Их окутала[p] сырость[s₁], в сто раз противней, чем на вольном воздухе, и запах плесени. 2. Человекообезьян[s₂] не стал[p] зажигать фонарь, но [θ(s₂)] уверенно шел[p] вперед. (185)

1. 안에서보다 더 건디기 힘든 습기와 곰팡이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2. 유인원은 등불을 켜지 않고, 확신에 차서 걸어갔습니다.)

39) 상응하는 폴란드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38a) 1. - [θ(s₁)] Myslałem[p], że to minister[s₂] jedzie[p] albo kto...
-2. [θ(s₃)] mruczał[p] wpatrując się w dal... - 3. [θ(s₁)] Muszeł[p] do ognia dołożyć [θ(c₄)], pardon...

4. [θ(s₃)] Powstał[p] ciężko i [θ(s₃)] opuścił[p] barak. (138)

이와 같이 러시아어에서 생략은 텍스트 전체의 테마보다는 문장의 화제가 그 대상이 되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등위접속절이나 종속절에서 선행하는 절이나 주절의 주격주어와 공지시적 주격주어가 사용될 경우이며, 둘째, 대화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지시 관계가 명확한 문장 성분이나, 결합하는 동사의 시상이 선행하는 동사의 시상과 동일할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 생략은 필수적이거나, 독립적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어 구어적 문학 텍스트의 생략에서는 혼의 R-원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혼의 R-원리는 “너의 공헌이 필요한 것이 되게 하라(Make your contribution necessary)”. “Q-원리가 주어졌을 때 말해야 하는 것만 말해라(Say no more than you must, given Q)”이고 하한적 함축(lower-bounding implicata)을 추론하는 것이다.(Horn 1984:13)

러시아어 텍스트에서는 특별한 통사 구조가 아니라면, 잉여적인 문법 정보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주격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격대명사가 생략된다 하여도, 생략된 주격대명사는 공지시적 관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을 함축하지 않으며, 생략된 주격대명사를 복원하여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즉 러시아어의 생략은 공지시적 관계 이외에 다른 화용론적 함축을 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때 우리는 R-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스와보미르 므로제크의 “남쪽으로의 도주”라는 작품의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버전을 비교 분석하며, 폴란드어와 러시아어 문학텍스트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들의 생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학술적 문체의 슬라브어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어적 특성이 강한 문학텍스트에서도 역시 폴란드어에서의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공지시성은 텍스트 전체에 작용하는 반면, 러시아어에서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공지시성은

문장 내에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빈도면에서도 폴란드어의 생략이 러시아어의 생략보다 더 잦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 분석된 예문에서 생략된 주어의 수를 비교해보면, 폴란드어는 약 120개, 러시아어는 약 60개로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또한 두 언어 모두에서 생략이 가능한, 주어집성이 높은 테마나 화제는 주격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주어집성이 높은 테마나 화제가 사격일 경우에는 대명사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문장에 표현되었고, 오히려 테마가 되지 않는 사격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맥락의존성이 높은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의 보어가 자주 생략되는 것과 연관되며, 보어 생략에 있어서는 두 언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시제의 동사에서 인칭을 표현하는 폴란드어에서 주어의 인칭은 잉여적인 정보를 표현하여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시체 결정이 모호한 경우나 테마의 정보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 즉 대조를 표현하거나 초점이 되는 경우, 그리고 내러티브의 변화가 생기거나, 화자의 관점이 변할 경우 테마도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중 내러티브의 변화나 화자의 관점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학술적 문체의 텍스트를 분석한 이전 연구(정정원 2013)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특징이다.

또한 학술적 문체나 신문 기사의 폴란드어 텍스트에서는 테마가 대명사로 공지시되는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특별한 화용론적 기능을 가지지 않은 채 *Lew Tolstoj, Tolstoj, Lew, pisarz, autor, mlodzienec, mlody Tolstoj* 등 다양한 수사적인 명사적 표현으로 주어 자리를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정정원 2013:167-168), 구어적 성격이 강한 문학 텍스트에서는 대명사뿐 아니라 수사적 명사 표현의 비중도 매우 낮았다. 주요한 테마는 대체로 *Gruby, Średni, Chudy, Małpolud, Chłopczy, Mef, Mef Kowalsky* 등 단순한 지칭으로 표현되고, 꾸밈이 많은 대체적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비록 폴란드어에서 주격 테마의 생략이 무표적이긴 하지만, 학술적 문체에서는 구어적 문학 텍스트보다는 명시적 주격 주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구어체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명시적인 주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Flashner 1987:132), 이것은 단순히

구어와 문어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술적 문체에서 명시적 주어의 높은 빈도는 의도적인 명시화와, 실제 구어체 텍스트에서 명시적 주어의 높은 빈도는 잦은 규칙 위반 및 무의식적인 명시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어에서 화제의 생략은 등위접속절, 관계대명사절, 종속절과 같은 특별한 통사 구조에서 발생하며, 이때 선행사와의 공지시적 관계는 문장의 틀 안에서 작용한다. 하지만 공지시 관계가 문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테마나 화제가 생략될 수 있는데, 이는 주어진 문장 성분과 결합하는 술어가 선행하는 술어와 동일한 시상관계에 놓이는 경우, 그리고 구어체 대화의 경우이며, 전자는 러시아어 텍스트에서 특수하게 발견되고, 후자는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구어체 대화의 특수성이다.

이와 같이 폴란드어에서 테마의 생략은 무표적이고, 러시아어에서 화제의 생략은 유표적이다. 유표적인 러시아어 생략과 달리, 무표적인 폴란드어의 생략은 언어 안에서 구조화되어, 생략되지 않은 테마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폴란드어 화자는 주격 테마를 생략하게 된다. 즉 폴란드어 주격의 구조적인 유형은 술어의 인칭 표시라는 형태적인 이유 이외에 화용론적 이유로 무표성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폴란드어 사격 테마가 생략보다는 대명사화라는 공지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폴란드어의 생략이 화용론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따라서 슬라브어의 생략과 유형은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화용론과 형태-통사론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1. 분석텍스트

MROŻEK, Sławomir, *Uciezka na południe*, Warszawa: Noir sur Blanc, 2002.
МРОЖЕК, Славомир, "Бегство на юг", *Мои возлюбленные кривоножки*
(перевод Л.М.Цывьяна), СПб.:Амфора, 2000, 5-194.

2. 학술자료

김명자, 「현대 러시아어의 영형대용사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0권, 2005,
155-179.
이인영, 「주제와 화제」,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6, 61-99.
정정원, 「폴란드어 무주어 채귀구문과 -no/-to 구문의 수동성과 능격성 연구」, 『슬라브
학보』 제25권 3호, 2010, 75-101.
정정원, 「슬라브어 영형태(null-form)에 대한 소고: 무주어문, 탈락 그리고 화용론적
생략에 대하여」, 『슬라브어연구』 제17권2호, 2012, 211-236.
정정원, 「슬라브어의 생략과 화제, 테마, 주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문어텍스트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2집, 2013, 160-189.

COATS, Herbert & Zheng Min Dong, "Ellipsis in Russian", *Russian Linguistics*,
Volume 18, Number 3. 1994, 281-298.

FLASHNER, Vanessa , "The grammatical marking of theme in oral Polish narrative".
Tomlin R. (eds),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Amsterdam:John
Benjamins. 1987, 131-156.

FRANKS, Steven , "On the status of null expletives", *Lingua* 81, 1990, 1-24.

FRANKS, Steven, "Null subject phenomena", *Parameters of Slavic Morphosyntax*.
N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87-332.

GIVÓN, Talmy,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Givón T. eds.)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3.),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3, 1-41.

GIVÓN, Talmy,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Li C.N. eds.)
Subject and Topic. NY, San Francisco, London: Academic Press Inc.,
1976, 149-188.

- GUNDEL, Jeanette K.,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June, 1993, 274-307.
- HORN, L. "Towards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D. Schiffrin, ed.)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xt* (GURT'84),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1984, 11-42.
- HUANG, Yan, *Anaphora. Across-linguistic study*. Oxford Univ. Press. 2000.
- KIBRIK, Andrej A., "A cognitive calculative approach towards discourse anaphora". (Baker P., Hardie A., McEnery T. & Siewierska A. eds.) *Proceedings of the Discourse anaphora and reference resolution conference(DAARC2000)*. Lancaster University: University Centre for Computer Corpus Research on Language. Technical Papers1 2, 2000, 72-82.
- KIBRIK, Andrej A. "Zero anaphora vs. zero person marking in Slavic: a chicken/egg dilemma?", (Branco A., McEnery T. & Mitkov R. eds.) *DAARC:2004 5th discourse anaphora and anaphor resolution colloquium. Proceedings*. Lisbon: Edicoes Colibri, 2004, 87-90.
- LIPÍŃSKA, Ewa & DAŃBSKA, Elżbieta GRAŻYNA, *Kiedys wrócisz tu...*Kraków: Universitas, 2001.
- McSHANE, Marjorie J., "Verbal Ellipsis in Russian, Polish and Czech",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44, No.2, 2000, 195-233.
- McSHANE, Marjorie J., *A theory of ellipsis*. Oxford Univ. Press, 2005.
- MILLER, Jim & WEINERT, Regina, *Spontaneous Spoken language. Syntax and discourse*. Oxford: Clarendon, 1998.
- NICHOLS, Johanna , "The grammatical marking of theme in literary Russian". (Brecht R. D. & Flier M. S. eds.) *Issues in Russian Morphosyntax*, Columbus: Slavica. 1985, 170-186.
- PRINCE, Ellen F.,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Cole P. eds.) *Radical pragmatics*, NY:Academic Press,. 1981. 223-255.
- БЕЛОШАПКОВА, В.А.,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Москва: Азбуковник, 1997.
- МЕЛЬЧУК, И.А., "Syntactic, or lexical, zero",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одели « смысл – текст»*, Москва-Вена :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5, 169-205 /

First published in: *Proceedings of the V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979, Berkeley: UCB, 224-260.

ПАДУЧЕВА, Е. В., *О семантике синтаксиса*. М.:Наука, 1974.

СКОВОРОДНИКОВ, А.П., “О критерии эллиптичности в русском синтаксисе”,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3., 1973, 114-123.

ЯКОБСОН, Роман, “Нулевой знак”,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М.:Прогресс, 1985, 222-230 / First published in: R. Jakobson(1939), “Signe zero”, *Mélanges de linguistique offerts à Charles Bally*, Genève.

❖ ABSTRACT

A Pragmatic Approach to Ellipsis in Russian and Polish Colloquial and Informal Texts of the Novel “Exit to the South”

Chung, Jung Won

The paper pragmatically analyzes ellipsis in Russian and Polish colloquial and informal texts. The famous Polish writer Sławomir Mrożek's "Exit to the South", written in Polish and Russian is used as a material for the analysis.

Russian and Polish ellipsis in colloquial and informal texts have in common that the givenness and subjecthood of the elliptical co-referent play a crucial role.

However, the ellipsis in two languages also has differences in many ways. Above all, in the Polish texts of colloquial and informal style, a theme is likely to be elliptical and the coreferential relation reaches to an extra-sentential antecedent, while the ellipsis in analysed Russian texts in most cases requires coordinate, subordinate or relative clauses, and the elliptical co-referent tends to have an intra-sentential antecedent.

The ellipsis of the theme-subject is unmarked in Polish, where every verbal form has an ending denoting person. Unlike formal style which often allows explicit noun subject, Polish text of colloquial and informal style prefer null form of the subject in most cases. If Polish sentences have explicit theme-subjects, they disambiguate intervening and main themes, and indicate the contrast, the focus, the introduction of new narratives or the change of speaker's point of view. Sometimes direct speeches and deictic pronouns also need explicit theme-subjects in Polish sentences.

On the other hand, the ellipsis of the theme-subject is marked in Russian even in colloquial and informal texts. The theme-subject can be deleted in Russian colloquial and informal texts, if the subject is a form of the first or the second person, or if the aspect and the tense of the antecedent sentence's verb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given sentence's verb and both the antecedent and the coreferential word have the nominative case.

Key Words

생략, 화용론, 슬라브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문학 텍스트
ellipsis, pragmatics, Slavic, Russian, Polish, literary texts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